

# 柔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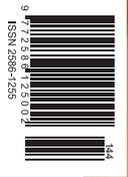


144  
2025  
겨울호

## 고교특급 이현지, 2025 대한유도회 최우수선수상

이현지·김하윤 나란히 금·은  
여자 최종량급 힙슨 한국 유도  
2025 도쿄 그랜드슬램

프랑스에서 날아든 낭보  
한국 카타, 세계선수권 금 1·은 1



# CONTENTS

2025 WINTER  
VOL. 144



## 2025 WINTER KOREA JUDO ASSOCIATION VOL.144

**발행일**  
2025년 12월 30일 | 통권 144호

**등록번호**  
송파 바 00008

**등록일자**  
1986년 9월 30일

**발행인 겸 편집인**  
조용철

**인쇄처**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대한유도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17호

TEL 02-422-0581  
FAX 02-420-4995  
Homepage judo.sports.or.kr  
E-mail judo@sports.or.kr



### 스페셜

02 2025 유도인 송년의 밤

### 국내대회

06 2025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겸  
2026년 1차 국가대표 선발전  
12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16 2025 제주컵 전국유도대회  
18 2025 동트는 동해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20 2025 철원컵 전국유도대회

### 국제대회

22 2025 도쿄 그랜드슬램  
24 2025 아시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26 2025 칭다오 그랑프리  
28 2025 세계카타(KATA)유도선수권대회

### 현장을 찾아서

32 2025 우수선수 스마트스타트 프로그램

### 탐방

34 폐광지역(사북), 유소년 꿈나무 훈련 현장

### 유망주를 찾아서

38 한국 남자 유도 최연소 국가대표 -81kg 심재윤(주산산업고)  
40 여자 -78kg급 기대주 이혜빈(용인대)

### 참관기

42 2025 생활체육대회 우수선수 도쿄 그랜드슬램 참관기

### NEWS IN JUDO

44 유도 뉴스 및 유도인 동정

### RECORD

46 유도기록실  
50 2025년 제4차 정기승단자 명단



한 해를 빛낸 얼굴들과 함께 한

# 2025

# 유도인 송년의 밤

이날 행사에는 조용철 대한유도회장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국내 체육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아시아유도연맹(JUA) 오바이드 알-안지 회장은 영상 축사로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조용철 회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유도를 지켜온 모든 유도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유도 환경을 만들어 한국 유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회장은 “2025년 한국 유도는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등으로 세계 정상 자리를 다시 확인했다”며, “2026년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체육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상 축사를 전한 알-안지 회장은 “한국 유도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강국”이라며, “앞으로도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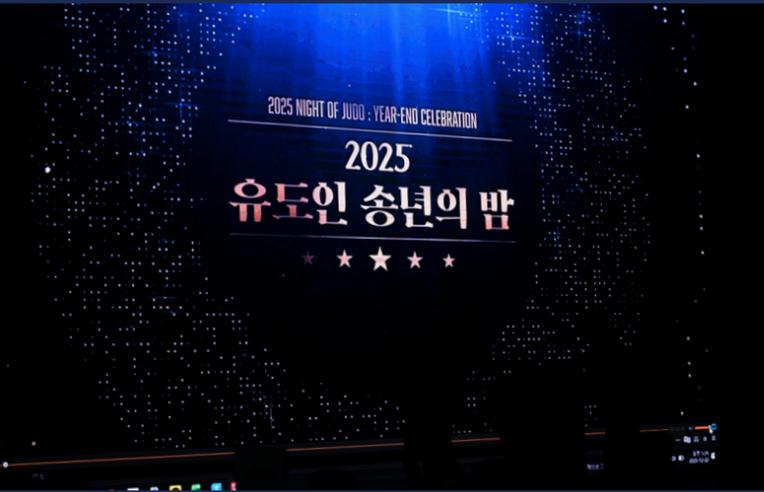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를 빛낸 유도인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최우수선수상은 여자 78kg 이상급 이현지(남녕고)에게 돌아갔다. 4월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시작으로 이현지는 5월 바리시 그랜드슬램, 2025 도쿄 그랜드슬램, 2025 바리시 그랜드슬램, 2025 칭다오 그랑프리까지 정상에 오르며 세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다.

특별상은 6월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 최종량급 최초 우승을 달성한 김하윤(안산시청)이 수상했다.

시상식 직후 케이크 커팅과 건배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며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조 )

‘2025 유도인 송년의 밤’이 지난 12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한 해 동안 땀과 열정을 쏟아온 유도인들이 모여, 성과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특별한 자리였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문복주 기자



### 2025 유도 최우수선수 이현지 “2026년 AG 금메달? 자신 있다”

“이런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대표팀 선배들과 지도자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다.”

지난 12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5 유도인 송년의 밤’. 2025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여자 최종량급 국가대표 이현지(남녕고)는 겸손하면서도 결연한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상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5년, 이현지의 한 해는 그야말로 눈부셨다. 4월 아시아선수권 금메달을 시작으로, 5월 바리시 그랜드슬램을 시작으로 9월 칭다오 그랑프리, 12월 도쿄 그랜드슬램까지 세 차례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 특히 도쿄 그랜드슬램 결승에서는 대표팀 선배 김하윤(안산시청)을 꺾고 우승하며, 체급 판도에 변화를 예고했다.

6월 세계선수권에서는 8강에서 김하윤에게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지만, 불과 반년 만에 체급 구도를 흔들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더욱이 이현지는 아직 고교 졸업을 앞둔 미성년 선수이고, 김하윤은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로 이미 세계 정상급 선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현지는 “2025년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시니어 데뷔 첫해에 감사할 만큼 굵직한 성적을 남겼다”며 “같은

체급에 김하윤이라는 결출한 선배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제대회 전체를 봐도 하윤 언니보다 기량이 뛰어난 선수는 거의 없는데, 그런 언니와 매일 함께 훈련하며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다”고 말했다.

도쿄 그랜드슬램 결승에서 처음으로 김하윤을 꺾은 순간에 대해서는 겸손했다. 그는 “제가 잘했다기보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경쟁자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사이다. 경기 후에도 언니가 먼저 따뜻하게 축하를 건넸다. 지금의 제가 있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역시 하윤 언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6년에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예정돼 있다. 아시안게임 유도에는 체급별 국가당 1명만 출전할 수 있다. 한국 유도 여자 최종량급 금메달은 2023년 항저우 대회에서 김하윤이 획득한 것이 유일하다.

이현지는 출전 욕심을 솔직하게 내비쳤다. 이현지는 “출전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언니와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다”며 “만약 제가 출전하게 된다면 크게 부담되는 상대는 없을 것 같다.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이미 대표팀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그러면서 “기회가 온다면 하윤 언니에 이어 아시안게임 최종량급 2연속 금메달을 이어가고 싶다. 더 멀리 본다면 2028년 LA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각오를 밝혔다. **柔**

“2025년 한국 유도는 세계 정상의 자리를 다시 확인했다”



# 고교특급이 세운 최초 기록, 올림픽이 보여준 힘

2025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겸  
2026년 1차 국가대표 선발전

국가대표 선발전은 늘 냉정하지만, 이번 순천의 매트 위에는 한 세대의 도약과 또 다른 세대의  
증명이 교차했다. ‘고교특급’ 이현지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국가대표 선발전 4연패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고, 한때 멀어졌던 올림픽의 꿈 앞에서 이하림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여기에 파리  
올림픽을 경험한 김민중·허미미·김지수는 국내 무대에서도 클래스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줬다.  
2025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겸 2026년 1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돌아봤다.

글·사진. 송현일 기자

## ‘고교특급’ 이현지, 국가대표 선발전 4연패

한국 여자유도 사상 최고 재능으로 꼽히는 이현지(남녕고)가 또 한 번 일을 냈다. 고교생 신분으로 국가대표 선발  
전 4연패를 달성하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향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지난 11월 1일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25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겸 2026년 1차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일반부 +78kg급 결승전. 경기 시작 30초 만에 이현지는 장유경(충북도청)을 씨름식 발다리 걸기로  
제압하며 단숨에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탐색전조차 마치기 전에 타진 번개 같은 한판승이었다.

이현지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이면 충분했다. 1차전에서는 신지영(순천시청)을  
상대로 20초 만에 발목 받히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으로 승리했고, 준결승에서는 손정연(포항시청)을 4초 만에  
발목 받히기 한판으로 제압하며 결승 무대를 사뿐히 밟았다.

이번 승리로 이현지는 지난해 3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24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시작으로 국가대표 선발  
전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전인미답의 기록을 세웠다.

이현지는 고교 2학년이던 2024년 4월 아시아선수권대회, 9월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10월 세계청소년선수  
권대회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던 초대형 기대주다. 2025년 5월에는 국제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바리시 그랜드  
슬램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무대 경쟁력을 입증했고, 6월에는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 있는 세계선수권대  
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남겼다.

최연소 국가대표 타이틀 역시 이현지의 기록이다. 고교 1학년이던 2023년, 한국 유도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현지는 “항상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쟁쟁한 언니들을 제치고 국가대표 선발전 4연패에 성공해 기쁘다. 고등학교 졸업 전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것 같아 뿌듯하다”며 “하지만 단순히 대표팀에 뽑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2026년 아시안게임과 2028년 LA 올림픽에서도 입상할 수 있도록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돌아온 스타 이하림,  
아시안게임 금메달 정조준**

한때 남자 60kg급 세계랭킹 1위에 오르며 한국 유도 간판 스타로 떠올랐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이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2회 연속 동메달을 따내며 기량을 입증했지만, 올림픽과는 유독 인연이 없었다. 대표팀 선배 김원진(현 양평군청 코치)이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는 동안, 그는 훈련 파트너로 만족해



이하림



야 했다. 지난해 3월 2024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전에서는 파리 올림픽행 티켓을 놓고 접전 끝에 허벅다리 걸기 한판패를 내주며 쓴 눈물을 삼키고 말했다. 이하림(국군체육부대)의 얘기가.

남자일반부 -60kg급 결승전. 이하림은 김화수(한국마사회)를 상대로 경기 종료 4초를 남기고 허벅다리 걸기 절반으로 승리를 따내며 짜릿한 진땀 승리를 거뒀다. 준결승전에서는 난적 전승범(포항시청)과의 경기 중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영리한 운영과 반칙 승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결승에서는 철저한 수비 속 한순간의 카운터 전략이 빛을 발했다.

화려한 복귀였다. 이하림은 파리올림픽 첫 출전의 꿈이 좌절된 데 이어, 2025년 3월 2차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에서도 최인혁(대구광역시청)에게 되치기 절반패를 허용하며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부상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일각에서는 “이하림의 시대는 끝났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이번 대회에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노련미를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를 되살렸다.

이하림은 원래 체력 유도의 대명사로 알려졌다. 부상으로 인해 플레이 스타일을 점차 바꿨다. 굳어지지 않는 움직임과 탄탄한 방어로 제2의 전성기를 열었고, 금메달을 목에 건 뒤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 부상을 딛고 3년 뒤 올림픽 입상을 목표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 남자유도 경량급은 김원진 은퇴 후 미명한 후계자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하림의 부활로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황희태 한국 남자유도 대표팀 감독은 “기량만 놓고 보면 올림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라며 “남은 부상만 잘 회복하면 앞으로 몇 년은 더 전성기급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무대는 좁다  
'올림픽 삼 남매' 나란히 금빛 메치기**

이번은 없었다. 지난해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한 김민중(양평군청), 허미미, 김지수(이상 경북체육회) 모두 각 체급 정상에 서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 전망을 밝혔다.

남자일반부 +100kg급 결승에서 김민중은 소속팀 동료 이승엽을 어깨로 메치기 절반, 이어 누르기 절반으로 제압하며 경기 시작 1분도 채 안 돼 한판승을 거뒀다. 사실상 차력 쇼에 가까운 압도적 경기였다. 190cm 장신에 근육으로 둘러싸인 이승엽을 김민중은 단숨에 들어 올려 무게 중심을 흔들지 않고 힘으로 제압했다. 준결승전에서도 박건우(남양주시청)를 경기 시작 26초 만에 양소매 업어치기 한판으로 꺾는 등 이날 출전한 4경기 모두 한판승으로 승리를 쓸어 담았다.

여자일반부 -57kg급에 나선 허미미도 금빛 행보를 이어 갔다. 준결승에서 정나리(한국체대)를 양소매 업어치기 절반으로 제압하고, 결승에서는 신유나(제주특별자치도청)와 연장 접전 끝에 누르기 유효승을 기록했다. 허미미는 이날 정나리와 잡기 싸움 도중 눈가에 부상을 입었으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회를 잘 마무리했다.

김지수는 같은 날 여자일반부 -63kg급 정상에 올랐다. 8강에서 체급 기대주 양지민(용인대)을 누르기 한판승으로 꺾은 데 이어, 준결승에서는 이주연(광주교통공사)을 상대로 반칙승을 얻으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김예지(한국체대)를 발목후리기 절반, 이어 누르기 절반으로 제압하며 올림피언다운 위엄을 과시했다.

**대학생, 실업팀 선수들을 제치고 국가대표로**

대학생 신분으로 실업팀 선배들을 제치고 국가대표 자리를 거머쥔 선수들도 있다. 용인대의 이승찬과 정수진이 대표적이다.

이승찬은 남자일반부 -81kg급 준결승에서 체급 강자인 안준성(한국마사회)을 양소매 업어치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으로 연이어 제압했다. 결승에서는 같은 학교 동료 박준현을 상대로 허리후리기 절반을 성공시키며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 체급 절대 강자인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이준환(포항시청)은 허리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불참했다.



여자일반부 48kg급 정수진(용인대) 역시 난항을 뚫고 당당히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정수진은 1차전부터 강호 허미미(경북체육회)를 만나 연장 4분 30초 혈전 끝에 간신히 반칙승을 따냈다. 준결승에서는 체급 간판 이경하(제주특별자치도청)를 꺾고 올라온 유주희(충북도청)와 맞붙어 수세 속에서도 경기 도중 상대의 부상 기권으로 위기를 넘어섰다. 박은이(고창군청)와 결승전에서는 정규 시간 종료 직전 시도한 안뒤축결기가 유효로 인정되며 금메달을 확정했다.

이승찬과 정수진은 이로써 내년 아시안게임 출전을 향한 유리한 고지에 섰다.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에서 세계랭킹을 끌어올리고, 국가대표 2차 선발전까지 잘 마치면 각 체급 새 얼굴로 자리잡을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남자일반부 -66kg급 결승에서는 임은준(인천광역시청)이 경기 종료 22초를 남기고 시도한 안뒤축결기 한판으로 정상에 섰다. 김찬녕(하이원)이 “임은준의 신체가 먼저 매트에 닿았다”며 항의해 장시간 비독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밖에 남자일반부 -90kg급과 -100kg급에서는 안재홍(한국마사회)과 한주엽(하이원)이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일반부 -52kg급, -70kg급, -78kg급에서는 장세윤(KH필룩스), 김혜미(광주교통공사), 김주윤(동해시청)이 각각 금메달을 안았다. ㉸



전국체전 유도 매트 위에는 단순한 승패 이상의 시간이 쌓였다. 25년 연속 정상을 지킨 경기도의 압도, 종료 1초를 남기고 바뀐 금메달의 주인, 세계선수권 챔피언들이 국내 무대에 남긴 존재감, 그리고 '살아 있는 전설' 안바울의 조심스러운 고민까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유도 경기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장면들로 가득했다. 부산에서 열린 이 대회는 한국 유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 시대의 끝자락을 동시에 비추는 무대였다.

글·사진. 송현일 기자

## 경기도 종합 25연패부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깜짝방문까지

### 키워드로 돌아보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 천하 무적

경기도, 25연패의 맹위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풍성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유도 이야기다.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부경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경기도의 종합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2001년 충남 대회 이후 무려 25회 연속 정상 등극이다. 경기도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수확하며 종목 점수 2,427점을 기록했다. 2위 경북(1,861점)과 3위 제주(1,838점)를 큰 격차로 따돌린 압도적인 성적이다. 일반부·대학부·고등부 전 부문에서 고르게 금맥을 터뜨린 결과였다. 단체전을 포함해 일반부 4개, 대학부 5개, 고등부 4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일반부에서는 안바울(남양주시청), 이승엽(양평군청), 김하윤(안산시청)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대학부에서는 용인대가 금메달 5개를 쓸어 담으며 저력을 과시했고, 고등부에서는 경민고와 경기체고가 각각 3개, 1개 체급 정상에 오르며 힘을 보였다.

이종명 경기도유도회 사무국장은 "고등부에서 경민고가 4개 체급 결승에 오르며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따낸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초반엔 경북과 팽팽했지만, 고등부 경기 이후 흐름이 완전히 경기도 쪽으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 마지막 1초

금메달 주인이 바뀐 순간

경기 종료 단 1초를 남기고 운명이 뒤바뀌었다. 남자대학부 -90kg급 결승전. 김승민은 김문수(이상 용인대)를 상대로 유효 1개를 앞선 채 경기를 마무리하는 듯했지만, 종료 1초 전 위장 공격으로 세 번째 지도를 받아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쳤다. 김승민은 경기 시작 2분여 만에 발다리로 유효를 때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그러나 마지막 50초 동안 지도 3개를 연달아 허용하며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다. 심판진은 마지막 지도 상황을 두고 비디오 판독까지 진행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한 유도인은 "잡기 싸움이 이어지던 상황이라서 베풀기만 해도 소극적 판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순간 무리한 기술 시도가 결국 화를 불렀다. 말 그대로 1초만 버텼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문수의 승자 선언 이후에도 김승민은 한동안 매트 위에 주저앉은 채 쉽게 일어서지 못했다. 마지막 1초가 남긴 여운은 그만큼 컸다.

# 월드 클래스

## 전국체전에 등장한 세계 1등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가 전국체전에 나선다면?

쉽게 보기 힘든 장면이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두 차례나 현실이 됐다. 한국 여자유도의 간판 허미미(경북체육회)와 김하운(안산시청)이 나란히 출전하며 경기장을 달군 것이다.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등장에 관중석은 박수와 환호로 술렁였다. 결과는 한마디로 '역시'였다. 허미미는 여자일반부 -57kg급, 김하운은 +78kg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허미미는 박다솔(순천시청)이 부상으로 기권한 1차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마무리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했다.

김하운 역시 쉽지 않은 고비를 넘겼다. 윤현지(철원군청)와의 준결승에서 진땀 나는 지도승을 거둔 뒤, 결승에서는 체급 강자 박새별(대구광역시청)을 한판으로 제압하며 대회 2연패를 완성했다.

국내 무대 정상에 다시 선 두 선수는 이제 시선을 국제 무대로 돌린다. 2026년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이 다음 목표다. 허미미는 "우선 국가대표 선발전에 집중해 출전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하운은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전설의 마지막

## 안바울, 전국체전 끝으로 은퇴할까?

한국 남자유도의 살아 있는 전설 안바울이 은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안바울은 18일 열린 남자일반부 -66kg급 결승에서 임은준(인천광역시청)을 한 팔 업어치기 한판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전국체전 금메달은 2022년 울산 대회 이후 3년 만이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은메달을 시작으로 2021년 도쿄올림픽 동메달, 2024년 파리올림픽 단체전 동메달까지, 안바울의 커리어는 한국 유도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만하다. 다만 다음 올림픽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바울은 "몸 여기저기가 좋지 않아 치료와 회복을 반복하며 대회를 준비했다. 오랜만에 전국체전에 나와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웃었지만, 앞으로 계획을 묻는 말에는 말을 아꼈다.

"무릎과 어깨에 고질적인 부상이 있다. 한 번 다치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역 은퇴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주변 조언을 듣고 충분히 생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26년 1차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柔

### • '체육계 VIP'들의 깜짝 등장, 관전 후기는? •

대회 기간, 유도장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체육계 VIP'들의 깜짝 방문이었다. 10월 18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이 나란히 대회장을 찾았다. 두 사람 모두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고, 수행 인원도 최소한에 그쳤다.

이들은 조용철 대한유도회장과 격식 대신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했다. 탁구 국가대표 출신 체육 행정인 두 사람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유도인 못지않게 경기에 몰입한 모습이었다. 옆에 앉아 관전한 조 회장의 '명품 해설' 덕분이었다. 유 회장은 "유도를 눈앞에서 직접 보니 내가 몸담았던 탁구만큼이나 박진감 있고 재미있다"고 웃었고, 김 총장은 "보고만 있어도 선수들이 흘린 땀의 무게가 느껴진다. 기술은 물론 체력 수준이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 2025 제주컵 전국유도대회에서 찾은 '내일'의 꿈

2025년의 끝자락, 남쪽 바람이 부는 제주에 초등학교부터 대학, 실업팀까지 총 3,418명의 유망주가 매트 위에 모였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열린 제주컵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첫 번째 점검장이었다. 선수들의 숨결과 땀, 관중의 환호가 뒤섞인 경기장은 잠시 제주를 '유도의 섬'으로 만들었다.

글·사진, 지호민 기자



### 송중초와 서울체중의 눈부신 활약

초·중등부의 경우 패권이 자주 바뀌는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는 서울송중초와 서울체중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서울송중초는 개인전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차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남초부 -48kg급 최우현은 전 경기 한 판승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여초부 -40kg급 백서진은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줬다. 서울송중초 코치는 “금메달 4개를 목표로 했지만 일부 아쉬움은 남는다”며 웃었다. 이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동계 훈련 때 더 준비해 2026년에는 전관왕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체중에서도 눈부신 성과가 이어졌다. 김진희(-57kg

급)와 김동우(-65kg급)는 같은 체급의 강자들을 연이어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아직 2학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기대된다. 김진희는 주 무기인 허벅다리걸기를, 김동우는 업어치기 기술을 더욱 다듬어, 3학년이 되어 전국대회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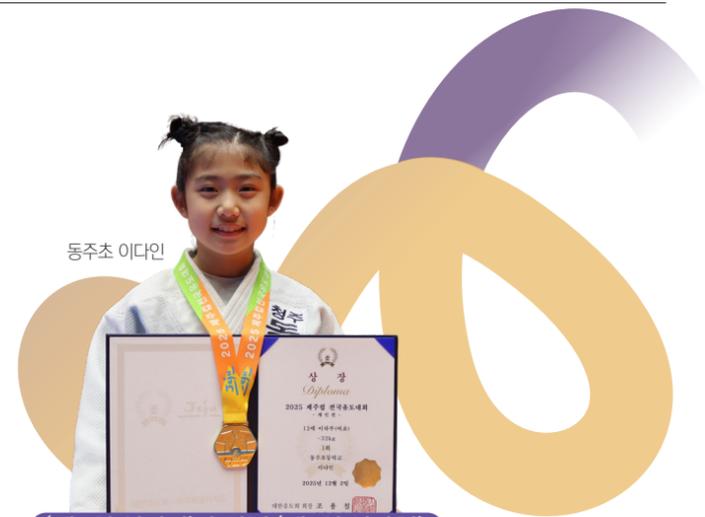
### 선배를 보며 키우는 꿈, 이현지 효과

과거 제주는 유도 불모지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국가대표 간판으로 성장한 이현지 등 유망주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제주 유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초·중·고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유도 유망주들도 이현지의 성공 사례를 보며 국가대표를 꿈꾼다. 여고부 -57kg급에서 우승한 문지현(남녕고1)도 그중 한 명이다. 문지현은 “평소 현지 언니에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 한 번씩 학교에 찾아와서 운동하는 법을 많이 알려주신다.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하는 방법이나 자세는 확실히

히 다르다”며 “현지 언니가 남녕고 출신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나 역시 언니처럼 실력을 쌓아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 극적인 결승, 남고부 단체전

3일 차 남고부 단체전 결승(7전 4선승제)은 이번 대회 최고의 명승부였다. 경북휴먼테크고는 3승 1패로 금메달에 한 발짝 다가선 상황이었으나, 남녕고는 한 경기만 내주면 우승을 놓칠 수 있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하지만 남녕고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5번과 6번 주자로 나선 이진혁과 장시환이 연속 한판승을 거두며 동률을 만들었다. 순식간에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자, 홈팀 남녕고를 응원하던 관중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결국 승부는 마지막 주자에게로 넘어갔다. 경북휴먼테크고의 백준호가 남녕고 안준형을 상대로 유효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확정했다. 남녕고는 막판 체력 부담 속에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의 투혼은 현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동주초 이다인

### '제2의 허미미'가 아닌 '제1의 이다인'

청주동주초 4학년 이다인(여초부 -32kg급)은 최근 유도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대형 유망주다. 이번 대회 전까지 이미 4관왕을 차지했던 그는, 이번 제주컵에서도 전 경기(4경기) 한판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초등부 최고 유망주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다인은 단순히 '잘하는 선수'를 넘어선 존재다. 민첩성과 유연성, 기술 구사 능력에서 또래 선수들을 압도하며, 일부 관계자들은 같은 시기 허미미보다 기량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지금의 성장세라면 충분히 허미미를 능가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선불리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다인의 탄생은 '제2의 허미미'가 아닌 '제1의 이다인'을 기대하게 만든다. 탁월한 재능과 경기 감각을 갖춘 그녀가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 빛날지, 유도 팬들의 시선은 벌써 매트 위로 향하고 있다.

###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무대, 제주컵

제주컵은 2023년까지 국제대회 형식으로 치러지며 큰 의미를 지녔지만, 최근에는 국내 팀만 참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회의 정체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강만순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장은 이를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는 “국제대회 형식이 아니라 아쉽지만, 내년·내후년 대회의 내실을 다져 한 단계 도약할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실업팀들의 참가가 저조한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 모든 유도인이 함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제주컵은 단순한 연말 대회를 넘어,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시즌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다. 특히 미래 유망주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팀 전력을 살피며 향후 판도를 예측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강 회장은 “제주컵만이 가진 장점은 선수들이 시즌을 앞두고 자신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다음 시즌 추적으로 될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유도로 채운 동해의 가을

### 2025 동트는 동해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2년 만에 개최

유도인들의 가을이 동해에서 다시 시작됐다. 2023년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2025 동트는 동해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가 10월 25~26일 이틀간 동해체육관에서 열렸다. 유치부부터 일반부까지 전국에서 모인 생활체육 유도 동호인 1,500여 명이 매트 가득 채우며, 동해의 늦가을은 다시 한 번 유도의 열기로 뜨거워졌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동해시 제공, 서호민 기자

#### 게임 좋아하던 '집돌이', 유도에 빠지다 남고 -73kg급 우승 유건화의 이야기

대회 첫날 열린 남자 중학부·고등부, 여자 고등부 등 3개 중별 23체급 경기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선수는 단연 남자 고등부 -73kg급 유건화(청담유도관)였다. 그는 1회전부터 결승까지 5경기 모두를 한판승으로 마무리하며 단연 돋보이는 기량을 선보였다.

유건화는 양손을 자유롭게 쓰는 잡기와 빠른 스피드, 탄탄한 체력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했다. 업어치기와 허리후리기 등 다양한 기술을 상황에 맞게 풀어내며 '팔색조'라는 말이 어울리는 경기를 펼쳤다. 시상식에서는 안병근 대한유도회 부회장으로부터 이례적인 칭찬을 받기도 했다.

메달을 목에 건 유건화는 "엄청난 영광"이라며 웃었다. 그는 "최형석 관장님께서 기술 하나하나를 정말 세심하게 봐주신 덕분"이라



유건화

며 "이전 대회에서는 수비적으로 하다 경기를 놓친 적이 많아,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나선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올해 고3인 유건화는 사실 운동과는 거리가 멀던 학생이었다. "어릴 때는 게임만 하고 밖에서 거의 안 놀았다"고 한다. 유도를 시작한 계기는 TV로 본 올림픽 경기였다. "남자답고 멋있어 보였다. 내 힘으로 상대를 넘기는 모습에 성취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유도를 시작한 지는 3년 남짓. 그는 여전히 유도를 즐기고 싶다고 말한다. "주변에서 정식 선수도 권하지만, 생활체육이 내게 딱 맞다. 계속 지켜봐달라"며 웃었다.

#### 메달보다 더 빛난 눈물

#### 유도로 이어진 두 소녀의 우정

여자 고등부 -63kg급에서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다. 천명유도관(화성) 소속 박채형(동탄이솔고 1)과 박시연(동탄중앙고 2)이 나란히 금·은메달을 차지한 뒤, 시상대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 것이다.

지난해 천명유도관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유도를 매개로 빠르게 가까워졌다. 전국대회에서는 같은 체급에서 맞붙는 라이벌이지만, 매트 밖에서는 누구보다 든든한 동료다. 결승에서 굳히기로 승리를 거둔 박채형은 "힘들 때마다 시연 언니가 항상 옆에 있어줬다"며 고마움을 전하자, 박시연 역시 환한 얼굴로 "채형아, 우승 축하해"라며 "한 살 동생이지만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번 대회까지 전국대회에서 세 차례 맞붙었다. 결과는 박채형의 3전 전승. 박시연은 "빈틈이 거의 없다. 기술도, 마음가짐도 배울 점이 많다"고 치켜세웠고, 박채형은 "시연 언니는 허벅다



박채형, 박시연

리걸기와 잡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경험만 쌓이면 더 무서운 선수가 될 것"이라고 훈훈한 칭찬을 주고받았다. "등수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쌓겠다"고 말한 두 사람의 약속은 메달보다 오래 남을 듯했다. ☺

#### “동해를 유도의 새로운 메카로” 천무언 동해시유도회장



2년 만에 대회를 다시 유치한 동해시유도회 천무언 회장도 현장을 지켰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했고, 멋진 기술이 나올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천 회장은 "원래는 매년 1월 개최를 계획했지만, 지난해는 여건상 대회가 양구로 넘어갔다"며

"올해 다시 동해에서 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초등부 꿈나무들의 참가가 많아 더욱 의미 있다고 했다. 천 회장은 "유도는 뿌리가 중요하다. 이 아이들이 계속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다"라며 사명감을 전했다. 천 회장은 동해라는 도시의 매력도 강조했다. "동해는 자연이 참 좋은 도시다. 선수들과 가족들이 대회뿐 아니라 동해에서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한다."

앞으로의 계획도 분명하다. 천 회장은 "매년 가을, 이 대회를 동해의 대표 스포츠 이벤트로 키우고 싶다. 참가하고 싶은 대회, 다시 찾고 싶은 대회로 만드는 게 목표"라는 포부를 밝혔다.

# 도전, 꿈, 그리고 10관왕의 무게

## 2025 철원컵 전국유도대회를 빛낸 선수들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엿새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는 '2025 철원컵 전국유도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76명의 선수들은 그동안 흘린 땀과 시간을 매트 위에서 증명했다. 금메달보다 값진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또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선수들의 이야기였다.

글·사진. 서호민 기자

### 체급을 올린 도전

#### 한주엽, 고향 철원에서 다시 증명하다

국가대표 출신 한주엽(하이원유도)이 철원에서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남자 개인전 -100kg급에 출전한 그는 결승에서 이흥규(고려대)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주엽에게 지난 1년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파리 올림픽 이후 부상으로 공백기를 보냈고, 재활과 함께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그는 체급을 올렸다. 그리고 지난 8월 김천컵을 통해 조심스럽게 복귀를 알렸다. 결과는 금메달. 철원컵은 복귀 후 두 번째 대회였다.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8강에서 김영빈(철원군청)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제압했고, 준결승에서는 최민철(제주특별자치도청)을 상대로 침착한 경기 운영 끝에 지도승을 거뒀다. 결승에서는 경기 종료 20초를 남기고 발기술로 절반을 따내며 승부를 갈랐다. 4전 전승, 우



승이었다.

한주엽은 “체급을 올린 뒤 두 번째 대회라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며 “아직 완전히 적응한 상태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우승은 고향 철원에서 거둔 결과라 더 뜻깊었다. 그는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라 우승이 간절했다. 목표를 이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 “태극마크 달고 싶어요”

#### 동해시청 양지영, 코리안 드림을 향해

여자 일반부 -70kg급에서는 양지영(동해시청)이 환하게 웃었다. 준결승에서 박세은(제주특별자치도청)을 꺾은 그는 결승에서 정승아(경남도청)를 상대로 굳히기 되치기 유효승을 거두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2025년 전국대회에서 동메달 두 개에 그쳤던 양지영에게 이번 금메달은 남다른 의미였다. 시즌 첫 우승이었기 때문이다. 양지영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선수다. 오사카 무코가와대를 졸업한 뒤 3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동해시청에 입단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그는 성실함 하나로 버텼다. 배상일 감독의 지도 아래 하루하루 기량을 쌓아왔고, 장기인 빗당겨치기 기술은 이제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배 감독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 결과로 보답 받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능숙한 한국말로 소감을 전한 양지영은 “오랜만에 국내대회에서 우승해 정말 기쁘다”며 “긴장하지 않고 집중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돌아봤다. 이어 “감독님과 팀에서 기술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더 분명하다. 2026년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다. “당장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집중하겠다”며 “부상 관리에 신경 쓰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 지는 게 싫어서, 다시 훈련으로

#### 문준서의 10관왕 이야기

문준서(과천중 3)는 이제 ‘떠오르는 유망주’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남중부 -90kg급 결승에서 이원준(옥천중)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숫자는 그의 성장을 증명한다. 2025년에만 전국대회 10관왕.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포함해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정상에 섰다. 2024년까지 포함하면 21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하지만 문준서는 담담했다. “전년보다 확실히 성장했다는 느낌은 있다”며 “예전에는 허리 기술에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지금은 생각한 대로 기술이 들어가 경기가 잘 풀린다”고 말했다.

이 성과 뒤에는 반복된 훈련이 있다. 그는 새벽부터 야간까지 훈련 일정을 빠짐없이 소화한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그의 머릿속은 다음 훈련으로 가득하다.

“실력이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지는 게 싫고, 유도를 더 잘하고 싶다. 원하는 유도를 하려면 될 때까지 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만할 만하지만 문준서는 욕심을 경계했다. “우승보다 중요한 건 겸손함”이라며 “왼쪽 선수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 그걸 보완하고 있다. 다음 대회에서는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



# 이현지·김하운 나란히 금·은 여자 최종량급 휩쓴 한국 유도

## 2025 도쿄 그랜드슬램



한국 여자 유도 최종량급 쌍두마차

이현지(남녕고·세계랭킹 1위)와 김하운(안산시청·4위)이 2025 도쿄 그랜드슬램에서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제대회 결승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맞붙는 장면은 흔치 않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약점 체급으로 평가받던 여자 최종량급이 이제는 한국 유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국제유도연맹(IJF)

### 최강 선배를 넘어선 이현지의 도약

#### 여자 최종량급, 판도가 움직인다

이현지는 12월 7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78kg급 결승에서 김하운을 상대로 조르기 한판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준결승에서는 일본의 도미타 와카바(37위)를 누르기 한판으로 제압했고, 준결승에서는 일본의 아라이 마오(6위)를 반칙승으로 꺾으며 결승에 안착했다. 이어 대표팀 선배이자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꼽히는 김하운까지 넘어서며 금빛 피날레를 완성했다.

결승은 처음부터 팽팽했다. 두 선수는 정규 시간 내내 힘겨루기와 신중한 견제를 이어갔고, 승부는 종료 직전을 앞두고 갈렸다. 연장



이하림

돌입 직전, 김하운이 왼손 업어치기를 시도했지만 이현지는 이를 버텨내며 자세를 전환했고, 그대로 넘어뜨린 뒤 그라운드에서 누르기 연결했다. 김하운은 끝내 탭을 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경기 후 이현지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선배에게 예의를 보였고, 김하운은 미소로 후배를 격려했다.

이현지는 지난해 세계청소년선수권 우승으로 이미 국제 무대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시니어 무대로 올라선 2025년에는 5월 바리시 그랜드슬램에서 첫 그랜드슬램 금메달을 따내며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다. 그러나 굵직한 승부처에서 김하운에게 막힌 경험이 있었고, 지난 6월 세계선수권 준결승에서도 패하며 동메달에 머문 바 있다. 그런 흐름을 딛고 이번 대회에서 선배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하운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4 파리올림픽 동메달, 2025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모두 보유한 세계 정상급 선수다. 그런 김하운을 이번 대회에서 이현지가 꺾으며, 한국 여자 최종량급 경쟁 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 ‘이제는 베테랑’ 이하림,

#### 프랑스 초신성 꺾고 동메달

같은 날 열린 남자 60kg 이하급에서는 이하림(국군체육부대·15위)이 동메달을 보냈다. 준결승에서 일본의 기대주 나카무라 다이키(4위)에게 경기 종료 30초를 남기고 어깨누르기 한판을 허용하며 결

승 진출은 무산됐지만, 동메달 결정전에서 프랑스의 로맹 발라디에 피카르(7위)를 상대로 반칙승을 거두며 메달을 확보했다.

이하림은 2년 전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던 한국 남자 경량급의 간판이다. 이후 잦은 부상으로 흐름이 꺾였고, 지난해 파리올림픽 출전권 경쟁에서도 선배 김원진(현 양평군청 코치)에게 밀리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2025년 들어 경기력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대회 8강에서도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나가야마 류주(5위)를 압도하며 경쟁력을 다시 증명했다. 이하림은 “몸 상태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2026 아시안게임까지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 간판스타 김민종의 입상 실패?

#### 체력 관리·전략 점검 필요한 때”

한국 남자 유도 최종량급 간판 김민종(양평군청·3위)은 이번 대회에서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우승과 파리올림픽 준우승을 차지한 정상급 선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김민종은 남자 +100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날 타소예프(러시아·1위)에게 발다리후리기 유효를 내주며 최종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앞선 8강에서는 일본의 나카무라 유타(46위)에게 빗당겨치기 절반을 허용하며 예상 밖 패배를 당했고, 패자부활전에서는 몽골의 체첸첸겔 오드쿠우(35위)를 업어치기 한판으로 잡아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마지막 고비에서 타소예프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柔



김민종

# 김용민·모수민·이혜빈 나란히 금메달 ‘대학 최강’ 삼두마차가 해냈다

## 2025 아시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한국 유도가 2025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며 아시아 주니어 무대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딴 지난 2023년 대회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좋아진 성적이다. 김용민, 이혜빈(이상 용인대) 모수민(한국체대) 등 대학 최강 삼두마차가 나란히 각 체급 1위를 기록한 덕분이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IJF

### 전 경기 업어치기 승리, -73kg급 갈증 풀 '유도 괴물' 등장

김용민은 9월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대회 남자 -73kg급 결승전에서 사파로브 부노드(우즈베키스탄)를 점선 끝에 업어치기 유효로 누르고 우승했다.

김용민은 이른 시간 유효를 얻어내며 먼저 리드를 잡았지만 이후 지도 2개를 내리 빼앗기면서 위기를 맞았다. 자칫 반칙패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김용민은 끝까지 주도권을 잃지 않으며 침착하게 경기를 매조졌다. 김용민은 이날 나선 모든 경기를 업어치기 승리로 마무리해 '업어치기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1회전에서 알자라니 사드(사우디아라비아)를 업어치기 한판으로 제압한 김용민은 8강전에서도 대만의 린 유정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물리쳤고, 발리자데 아미르호세인(이란)과 준결승전에선 시작 1분 만에 벼락 같은 업어치기 한판승을 잡아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김용민은 경민고 시절부터 뛰어난 기량으로 유도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고교생 신분으로 출전한 전국청소년선수권대회에선 대학생 형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국 남자유도가 -73kg급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2004년 아테네 대회 아원화가 마지막으로 21년 전 일이다. 전 체급을 통틀어 같은 나이대 최고 재능으로 주목받는 김용민이 20년 넘게 끊긴 이 체급 계보를 다시 쓸지 시선이 모인다.

### 여자 중량급 '금빛 메치기' 모수민·이혜빈 동반 우승

여자부 중량급에서도 시원한 금메달 소식이 이어졌다. 모수민이 -70kg급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혜빈도 -78kg급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며 금빛 행진을 이어갔다. 준결승전에서 타이반간비 차누 카이렘(인도)을 상대로 업어치기 절반에 누르기 절반을 더해 한판승을 완성한 모수민은 시나르 비 틸베이(카자흐스탄)과 결승전에서도 업어치기 절반에 이은 누르기



절반으로 승리를 챙겼다. 이혜빈은 준결승전과 결승전에서 체호시 왕(대만)과 이시롭 나랑(인도)을 차례로 각각 허벅다리걸기 절반, 허리후리기 절반에 이은 누르기 절반으로 이겼다.

### 멈추지 않는 메달 행진 은 2개, 동 3개로 마무리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이준환(용인대)의 동생으로 알려진 이준현이 -66kg급 은메달을 품에 안았다. 준결승전에서 예라실 예르카노프(카자흐스탄)를 상대로 완벽한 누르기 한판승을 따냈지만, 결승전에선 달쇼드백 하므로예프(우즈베키스탄)에게 안다리걸기 절반을 빼앗겨 아쉽게 준우승했다.

김용민과 더불어 올해 대학 신입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남자 최중량급 김민준도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베이바리스 술탄(카자흐스탄)과 준결승전에선 누르기 한판승, 파출딘 라피코프(우즈베키스탄)과 결승전에선 누르기 한판패를 했다.

여자 -48kg급 정수진(용인대)은 동메달결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루크쇼나 알리세로바를 허벅다리걸기 한판으로 제압했고, 배희진(한국체대)은 아디나 코츠콘배바(키르기스스탄)에게 업어치기 절반승을 낚아 시상대 마지막 자리를 지켰다.

남자 -90kg급에선 최재민(용인대)이 오드자프클란 안크바야르(몽골)을 누르기 한판으로 꺾고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

# 세계 1위는 다르네! 이현지, 37초 만에 ‘압승 금메달’

## 2025 칭다오 그랑프리



한국 여자유도가 자랑하는

보물 이현지(남녕고)가 또 한 번 세계를 메쳤다.

지난 9월 28일 중국 칭다오 콘손 체육관에서 열린

2025 칭다오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뒤 그는

“내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자신감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크게 웃어 보였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IJF

### “견제 상대는 하운 언니뿐” 자신감 충만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 이현지가 여자 +78kg급 결승전에서 경기 시작 37초 만에 레아 폰테인(프랑스)을 발목 받히기 절반에 이은 누르기 절반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쉬운 상대는 아니었다. 폰테인 역시 세계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체급 강자로 자국 최고 기대주 중 한 명이다. 이현지는 그런 폰테인을 어린애 다루듯 가볍히 매트에 눕혔다. 준우승이 확정된 직후 폰테인도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내두르며 웃었다.

앞선 준결승도 마찬가지로였다. 세계 랭킹 10위 지네슈어 아이만(중국)도 이현지에게 힘 한번 못 쓰고 졌다. 이현지는 아이만을 상대로

한 점도 허용하지 않고 안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행 문을 활짝 열었다.

“잘하는 선수들을 잇달아 이기고 우승해 더 기분이 좋다. (김)하운 언니 말고는 지금 국제대회에서 딱히 견제되는 상대가 없다”고 밝힌 이현지는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몸이 점점 더 올라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다. 출전권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지만 부상만 없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간 약점으로 꼽힌 경험 부족에 대해선 “이번에 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국제대회를 많이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많이 생겼다. 그동안에는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될 것도 안 되는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승패를 떠나 경기 자체가 술술 잘 풀려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설명했다.

### 경량급 이하림, 연장 접전 끝에 아쉬운 은메달

경량급 간판 이하림(국군체육부대)도 남자 -60kg급 은메달을 목에 걸며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1차전 부전승을 거둔 이하림은 2차전에서 카자흐스탄의 알디야르 카굴로프를 상대로 모두걸기 유효승을 따낸 뒤 8강전에서 페츠크 차나드(헝가리)를 한팔업어치기 한판으로 눌렀다. 이어 투멘자르갈 투브신투르(몽골)와 준결승전에서 되치기 절반승 한 이하림은 우승 길목에선 연장 2분 48초 접전 끝에 지도 3개를 받아 콘도 하야토(일본)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 ‘깜짝 은메달’ 김민정, 국제무대 화려한 신고식

여자 -52kg급에선 김민정(경기대)의 깜짝 은메달이 나오기도 했다. 4강전에서 난적 우탄자야 바안몽흐(몽골)를 말아업어치기 한판으로 물리친 김민정은 결승전에선 타케우치 린(일본)에게 오금대 떨어뜨리기 한판패를 허용하며 아쉽게 물러났다. 김민정은 고교 시절 큰 주목을 받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대학 진학 후 기량이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생애 첫 성인 국제무대였던 이번 대회에서도 준우승으로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다. 한 유도계 관계자는 김민정이 “성인이 되고 힘이 붙으면서 고등학생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다”면서 “부상만 없으면 앞으로도 꾸준히 태극마크를 달 재목”이라고 높게 바라봤다.

### 황수련·김찬녕·이승엽, 값진 동메달 3개 추가

-52kg급 황수련(광주교통공사)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바안몽흐(몽골)를 되치기 유효로 꺾고 유종의 미를 수확했다. 남자 -66kg급에선 김찬녕(하이원)이 장 쇠이(중국)에게 허벅다리걸기 절반승을 거두고 시상대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으며, 남자 최중량급 이승엽(양평군청)도 알리셰르 유수포프(우즈베키스탄)를 안다리걸기 절반으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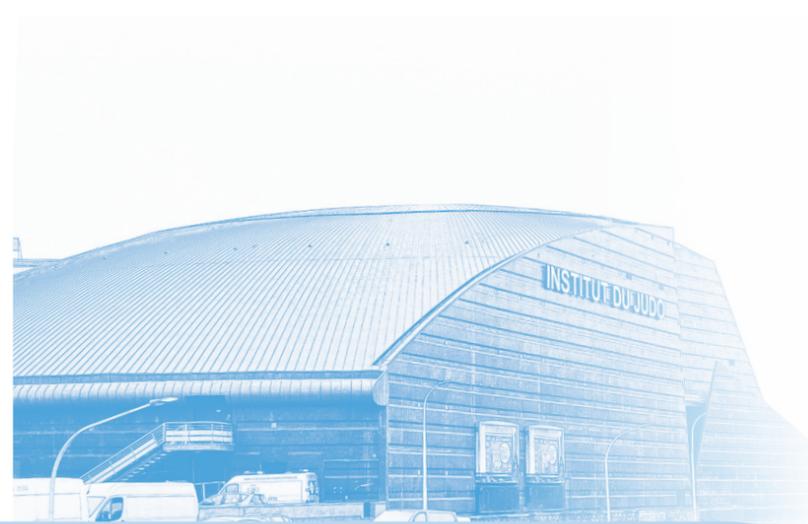


# 프랑스에서 날아든 낭보

## 세계 KATA 선수권 금 1은 1, 한국 카타 존재감을 알리다

프랑스 파리에서 반가운 메달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상진 감독을 비롯한 12명의 카타 대표팀이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2025 세계카타(KATA)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전 세계적으로 카타의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지금, 아직 국내에서는 저변이 약한 카타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성과는 더욱 값지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국제유도연맹, 이상진 감독 제공



### 박준영-정지훈 금메달

### 우료민-우료아 은메달 쾌거

카타(Kata)는 유도의 기본이 되는 기술의 원리를 정형화된 동작으로 표현하는 종목이다. 메치기 본, 굳히기 본, 부드러운 본, 호신의 본, 강도관 호신술 등 총 5개 세부 종목으로 구성된다. 유도의 본질을 가장 정제된 형태로 담아내는 종목이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중적 관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전해진 메달 소식은 분명 '낭보'였다.

이번 성과는 우연이 아니었다. 대한유도회를 비롯해 KATA 관계자들이 각자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었다. 카타 대표팀은 준비 과정부터 달랐다. 대회를 앞두고 국내 합숙 훈련을 실시하며 조직력을 끌어올렸고, 선수들은 추석 명절 연휴마저 반납한 채 훈련에 몰두했다. 이상진 카타 대표팀 감독은 "2023년부터 대표팀을 이끌며 카타 대회에 참가해왔는데, 올해는 대한유도회에서 합동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셔서 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손발을 충분히 맞춰본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메치기 본, 굳히기 본, 부드러운 본, 호신의 본, 강도관 호신술 등 5개 종목에 출전했다. 부드러운 본에는 2팀이 나서 총 12명의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펼쳤다.

대회 첫날, 메치기 본에 출전한 박준영(잡기)-정지훈(받기) 조는 예선부터 남다른 집중력을 보였다. 각국의 강자들이 포진한 경쟁 속에서도 예선 조 1위로 결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는 9개국 선수들과의 경기를 통해 압도적인 시범을 선보였다. 풍부한 경험과 안정된 기술, 흔들림 없는 호흡은 점수로 이어졌다. 총점 389.5점. 결과는 금메달이었다.

기세는 이튿날까지 이어졌다. 부드러운 본 종목에 출전한 우료민(잡기)-우료아(받기) 자매는 결선에서 387점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눈빛만으로도 호흡이 맞는 두 사람의 시범은 친자매로서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유대의 결과였다. 특히 이들은 이번 대회에 자비로 참가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울림을 남겼다.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메달로 응답했다.

비록 메달에는 닿지 못했지만 성과는 이어졌다. 굳히기 본의 조강해(잡기)-우현욱(받기) 조와 부드러운 본 김민국(잡기)-김다연(받기) 조는 4위에 오르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호신의 본과 강도관 호신술에 출전한 박지연-김기현, 안정만-최영조 조 역시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의 경쟁 속에서 값진 경험을 쌓았다. ❶

**대회 결과**

메치기본 Nage-no-Kata(청소년부)	박준영/정지훈(에이스유도체육관) 1위(389.5점)
부드러운본 Ju-no-Kata(청소년부)	우료민/우료아(트리니티유도) 2위(387점)
굳히기본 Katame-no-Kata(청소년부)	조강해/우현욱(명근유도관) 4위(374.5점)
부드러운본 Ju-no-Kata(청소년부)	김민국/김다연(이승원유도관) 4위(379점)



**“한 팀으로 만든 결과”**

**이상진 감독이 들려주는 한국 카타의 성장**

노메달에 그쳤던 지난 해와 비교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와 달리 합동훈련을 통해 손발을 맞추고 수정할 부분을 보완한 것이 실전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또 숙소와 경기장 간 이동 동선이 짧아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됐다. 이런 외적인 요소도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메치기 본 선수들이 좋은 출발을 해주면서 다른 종목 선수들도 자신감을 얻었다.

**합동훈련의 효과는 어느 정도였나.**

훈련 기간이 짧았던 점은 아쉽지만, 카타에 정통한 지도자와 관계자들이 모여 종목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기간을 늘려 진행 하고 싶다.

**메치기 본 박준영-정지훈 조의 금메달 원동력은?**

2년 전 아부다비 대회에서 은메달을 딸 만큼 이미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이다. 평소에도 성인부 입상 선수들의 영상을 보며 꾸준히 연구하고, 습득력이 뛰어나다. 이선영 코치가 자세 등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줬다. 실력차가 월등히 날 정도의 시범을 보여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고, 일본 선수들로부터도 ‘동작이 깔끔하고 멋지다’는 칭찬을 들었다. 앞으로 활약이 기대된다.

**카타의 국내 보급과 활성화 위해 필요한 점은?**

세계적으로는 해마다 대회 규모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에서도 대회를 신설해 관심을 유도하고, 전 종목에 도전하는 선수층이 꾸준히 나와야 한다. 성인부와 청소년부를 분리해 대회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내에서도 대표 선발전이 따로 열리고 있고 국제대회에서 메달 성과가 이어진다면 카타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개인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선수들과 스태프 모두가 협동심을 발휘해줬고,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고생한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

**세계선수권을 향한 첫 호흡,  
처음으로 열린 카타대표팀 합동훈련, 그 효과는?**

두 사람이 한 동작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것은 정확한 기술보다 먼저, 서로를 향한 호흡이다.

지난 10월 3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유도체육관에서는 2025 세계카타유도선수권대회를 대비한 카타 대표팀 합숙훈련이 열렸다.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합동훈련에서 선수들은 짧지만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며 기술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양윤서 기자

카타는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수행하는 수련 방식이다. 기술을 거는 ‘잡기’와 이를 받아내는 ‘받기’ 사이의 호흡이 곧 카타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동작 하나하나의 정확성은 물론, 흐름과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비로소 하나의 카타가 완성된다. 결국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맞춰왔는지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종목 특성을 고려해 대한유도회는 카타 세계선수권대회를 대비한 국내 합숙훈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대표 선수들은 이번 합숙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손발을 맞추며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기회를 얻게 됐다. 훈련 첫날, 체육관에 모인 12명의 선수들은 저마다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며 기술을 다듬는 데 여념이 없었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한국은 3년째 카타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 있지만, 지난 2년 동안은 별도의 공식 합숙훈련 없이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지도자들 사이에서 체계적인 합숙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종목 특성상 선수 간 호흡이 중요한 만큼 유도회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느껴 올해 처음으로 합숙훈련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훈련 효과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호신의 본을 함께 연습한 김기현(서울자동차고)-박지연(용인대)은 “카타는 잡기와 받기 사이의 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수들끼리 자율적으로 연습하는 것과 공식적인 훈련 환경에서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맞춰보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제대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직 국내 카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단계에 있다. 하지만 전국대회를 중심으로 카타 종목이 점차 확대되며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카타 강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존재하지만,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은 분명하다. 대한유도회는 앞으로 훈련 기간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 카타 대표 선수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진 카타대표팀 감독은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수들이 함께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유도회에 감사하다”며 “이런 훈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다면, 카타의 보급과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❷





## 미래 국가대표를 꿈꾸는 시간

###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5 우수선수 스마트스타트 프로그램'



미래 국가대표를 향한 꿈이 진천선수촌에서 다시 움텄다. '2025년 우수선수 스마트스타트 프로그램'이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간 열렸다. 이번 훈련에는 고교와 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낸 유도 유망주 8명과 지도자 2명이 참가해, 국가대표의 하루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몸풀기부터 대련까지,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진 훈련은 성인 국가대표와 다르지 않았다. 글·사진: 서호민 기자

**미리 겪어보는 국가대표의 길** 우수선수 스마트스타트 프로그램은 차세대 국가대표 후보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를 내다보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과 2028 LA 올림픽까지 이어질 인재 풀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시작돼 올해로 2년째를 맞았다. 훈련은 기초 체력과 기술 훈련을 중심으로, 성인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합동훈련, 정밀 의료 검진과 체력 피드백까지 두루 담았다. '잘 훈련하는 선수'를 넘어 '오래 성장할 수 있는 선수'

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곳곳에 묻어났다. 2년 연속 프로그램을 이끈 김현태 국가대표 후보선수 감독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남녀 각 4명씩을 선발했다"며 "일부 큰 성장 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이 프로그램을 '미리 걸어보는 국가대표의 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선수들이 당장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는 분명히 느낄 것"이라며 "훗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

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은 매트에서 부딪히며 배우다

스마트스타트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인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합동훈련이다. 후보 선수들은 몸풀기부터 대련까지 대표 선수들과 같은 흐름 속에서 움직였다. 같은 매트에서 부딪히고, 같은 맘을 흘리며 차이를 실감했다. 김 감독은 "대표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큰 자극이 된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대표란 이런 자리구나' 하고 몸으로 느끼는 경험은 쉽게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아쉬움도 남는다. 김 감독은 "더 많은 유망주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8명은 적다. 체급별로 더 많은 선수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과 체력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룰 수 있다면 프로그램이 한층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나도 언젠가는 여기로 돌아오고 싶다"

꿈과 희망이 싹트는 진천선수촌 유도장에는 5박 6일 내내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다. 선수들

의 표정은 훈련이 거듭될수록 달라졌다. 긴장과 설렘이 섞였던 첫날과 달리, 마지막 날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채민(인천여고 2)은 "선배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이였다"며 "김하윤, 이현지 언니의 훈련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배들로부터 업어치기와 허벅다리걸기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며 "국가대표가 돼 다시 진천선수촌에 오고 싶다"고 했다.

박성현(용인대 2)은 2년 연속 참가하며 변화를 체감했다. "작년보다 프로그램이 훨씬 정리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그는 "특히 메디컬 테스트와 훈련 흐름이 체계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김민중과의 훈련도 큰 도움이 됐다. "허벅다리걸기에 서 막히던 부분을 세세하게 짚어줘 고민이 많이 풀렸다"고 말했다. 신유미(광영여고 3)도 진천선수



김현태 감독

촌에서의 시간이 특별했다고 했다. 그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훈련하는 게 흔치 않은 기회"라며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다 보니 스스로를 더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지 선수의 훈련 모습을 가까이서 보며 왜 정상급 선수인지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훈련 기간 동안 여자 국가대표 김하윤은 후보 선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조언을 건넸다. 훈련 도중 만난 김하윤은 "내가 어릴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며 "후배들이 이런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여기서 느낀 걸 디딤돌 삼아 목표를 더 크게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머지않아 태극마크를 달고 다시 만나길 바란다"며 미소를 지었다. (주)

#### 2025 우수선수 스마트스타트 프로그램 참가자

전임감독(1명)	김현태
전문지도자(1명)	김주연(선문대)
선수(8명)	오상우(용인대), 조연우(경민고), 박성현(용인대), 김민중(용인대), 신유미(광영여고), 양지연(광영여고), 고미소(선문대), 이채민(인천체고)



이채민, 박성현



# 폐광촌 사북, 유도로 희망을 싹틔우다

지역 나눔이 키운 사북 유도 꿈나무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카지노와 전당포, 숙박업소가 늘어서 있는 풍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의 현실이다. 폐광 이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유치한 내국인 카지노는 아이러니하게도 교육 환경을 더욱 버겁게 만들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다. 하지만 최근 사북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유소년 유도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사북초 제공



## 재능기부에서 시작된 변화 연례행사가 된 유도단의 약속

석탄 산업 쇠퇴 이후 사북읍에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섰다. 한때 수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현재 4,000명 남짓으로 줄었고, 초·중학생 수는 300명에 불과하다. 도박 도시라는 오명 속에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런 사북이 유소년 유도가 만들어낸 기적으로 다시 빛나고 있다. 폐광촌에 정착한 유도 전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재능기부가 변화의 씨앗이 됐다. 그 토양 위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했고, 우연히 출전한 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초·중학교 유도부는 위기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는 훈련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TV에서만 보던 선수들의 도복을 직접 만져보고, 같은 매트 위에서 숨을 고르는 순간마다 훈련장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진짜 힘이 세다”, “올림픽 메달도 땀어요?”라는 아이들의 질문 속에는 호기심과 동경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이러한 재능기부는 2013년부터 연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사북초·중·고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진로 연계 활동으로 발전했다. 2024년에는 정선을 연고로 한 하이원유도단 소속 올림픽 메달리스트 한주엽이 학교를 찾아 유도 클리닉





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복초 배수인 코치는 “자발적인 재능기부에서 출발해 지금은 연간 두 차례 정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번은 선수들이 학교를 찾고, 또 한 번은 아이들이 진천선수촌이나 태릉훈련장을 찾아 대표 선수들의 훈련과 생활을 직접 체험한다”고 설명했다.

하이원유도단 김건우 감독 역시 재능기부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어린 선수들에게 실업팀 선수들과의 만남 자체가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훈련을 지켜보며 느끼는 태도와 자세가 말보다 오래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 연구 실업팀의 존재는 사복의 유도 꿈나무들에게 무엇보다 큰 자산이다. 김찬영, 한주엽 같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아이들은 유도 선수로서의 꿈을 구체화한다. 배수인 코치는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얻기 힘든 경험이라며, 이러한 환경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동기부여와 목표 의식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코치의 열정,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

사복 유도가 달라진 이유

사복에서 유도장은 아이들에게 사실상 놀이터와 같다. 사복초 박도술, 이준수 학생은 유도장에서 친구들과 땀 흘리며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말한다. 지역사회 역시 아이들의 이런 공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탤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유도부까지 창단되며 초·중·고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완성됐다. 유도를 배우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오는 학생도 하나둘 늘고 있다. 배 코치는 “입소문을 타고 인근 정선과 영월에서도 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해마다 인원이 늘면서 고등학교 유도부 창단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방과 후 아이들이 갈 곳이 많지 않은 지역 특성상, 유도는 이제 사복 아이들에게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다.

사회적 기업인 강원랜드의 재정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지원은 성적으로도 확인된다. 사복초·중 유도부는 2025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꿈나무·청소년 국가대표를 배출하며 유도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4명이었던 꿈나무 선수 수는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고, 사복 유소년 유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청소년 대표도 탄생했다.



배 코치는 “지역에 실업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다”고 말한다. “아이들 중에는 지역 실업팀 입단을 꿈꾸며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도 있고, 언젠가 같은 지역 출신 선수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드러냈다.

유도를 배우기 위해 학교를 찾는 아이들은 늘고, 지도자의 시선은 성적 너머를 향한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지원을 멈추지 않는다. 그 결과 사복 유도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더 이상 폐광촌이나 도박 도시라는 이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곳에는 오늘도 도복을 여미며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다. 희망은 그렇게, 사복의 유도 매트 위에서 차근차근 자라고 있다. ㉞

“유도를 통해 한 뼘 더 자랐어요”

사복 유도 꿈나무들이 말하는 재능기부 참여 소감

“얼마 전 중학교 유도실에서 하이원 유도단 선수분들과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기술을 배우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으면서 제가 한 단계 더 자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써 보지 못했던 기술과 움직임을 연습하고, 실제로 사용해 보았는데 그 기술이 잘 통해서 정말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소년체전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더 먼 미래에는 제 꿈인 국가대표가 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유도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박도술 / 사복초 6학년

“훈련을 같이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고, 하루하루 성실한 훈련이 결국 실력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유도 기술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바른 자세도 배웠어요. 그리고 노력과 끈기가 얼마나 중요하지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귀중한 경험과 조언을 해주신 하이원 유도팀 선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배운 것들을 앞으로의 훈련에 잘 써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빛내는 유도선수로 성장하고 싶어요!” 이준수 / 사복초 6학년



# 열일곱, 태극마크

## 한국 남자 유도

### 최연소 국가대표 심재운

한국 남자 유도 사상 최연소 국가대표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심재운(17·주산산업고 2). 11월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26년 1차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81kg급에서 3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체급 간판인 2024 파리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이준환(포항시청)의 뒤를 이을 차세대 재목으로 평가받는다. 황희태 한국 남자 유도 대표팀 감독은 심재운에 대해 “타고난 힘이 아주 좋고, 대표팀 선배들을 상대로도 과감하게 기술을 들어가는 걸 보면 멘탈도 강하다”며 “당장 성인 무대에 투입돼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선수”라고 말했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유용우 기자

#### 메달 색에는 나이가 없다

“대표팀 승선의 기쁨보다는, 결승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이 더 컸다.” 심재운의 말이다. 그는 2026 국가대표 1차선발전 준결승전에서 박준현(용인대)에게 유효 1개 차이로 졌다. “한 번 일반부에 참가한 이상,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은 핑곗거리에 불과하다. 메달 색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최연소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은 감사하지만, 아직은 부끄러운 태극마크다. 다음 선발전에선 꼭 스스로에게 당당해지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도발적으로 들릴 법한 자신감이지만, 근거는 분명하다. 나이답지 않은 다부진 체격은 그간의 노력을 증명한다. 한창 성장기인 심재운은 벤치프레스 120kg, 스쿼트 150kg, 데드리프트 200kg을 들어 올린다. 삼대 운동 중량이 체중의 다섯 배를 훌쩍 넘는다. 유도 선수에게 특히 중요한 데드리프트 기록은 2012년 런던 올림픽 같은 체급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한국마사회 감독의 전성기 시절 과도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한다. 심재운은 “부족한 점투성이지만, 그나마 장점을 꼽자면 코어 힘과 체력”이라며 씩 웃었다.

심재운이 유도를 처음 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다. 목적은 단순했다. 살을

빼기 위해서였다. 나이에 비해 덩치가 커 부모가 소아비만을 걱정할 정도였다. 하지만 막상 도복을 입고 보니 재능이 드러났다. 순발력이 경량급 선수 못지않았고, 자연스럽게 지도자들의 눈에 띄어 엘리트 선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그는 빠르게 성장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다. 다만 그 기억은 달콤하기만 하진 않았다.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놓친 게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다. 자만했다. 정말 부끄러웠고, 운동선수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지금의 심재운을 만든 쓰지만 값진 한 번의 패배였다.

#### 과력 위에 올라탄 대담함

대표팀 합류로 심재운은 이른바 ‘성덕’이 됐다. 평소 존경하던 김종훈(양평군청)과 한술밥을 먹게 됐기 때문이다. 심재운은 “주변 선생님들께서 늘 종훈이 형 같은 선수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지도자들이 말할 정도로 독하게 훈련하는 선수라고 들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 대표팀에서도 훈련량만큼은 손에 꼽힌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팀 선배들은 자는 시간만 빼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훈련한다”며 “나도 노력파라고 자부해 왔지만, 여기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 따라잡기가 벅차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중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 훈련하는 사람이 바로 종훈이 형”이라고 덧붙였다. 현역 시절 ‘장사’로 이름을 날렸던 황 감독도 그의 힘을 인정한다. 대표팀 선배들과의 훈련에서도 힘에서는 쉽게 밀리지 않는다. “동 나이대에서는 힘이 센 편이긴 하다”며 씩씩하게 웃은 심재운은 “근력을 살려 발다리걸기와 업어치기를 동시에 들어가는 변형 기술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심재운  
생년월일 2008년 4월 16일  
신장/체중 177cm 85kg  
출신학교 대남초-청라중-주산산업고  
주요경력 2025~ 한국 남자 유도 국가대표

다. 황 감독은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가진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선수”라며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큰 기술을 시도하는 대담함이 있다. 대표팀에서 몇 년간 공들여 키운다면 원석이 보물로 바뀔 재능”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보령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그의 부모는 요즘 가게 한편을 신문 기사로 채우고 있다.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 소식을 전한 기사들이다. 심재운은 “LA 올림픽이 끝나면 가게 벽에 신문 대신 메달을 걸어드리고 싶다”며 웃었다. “유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늘 뒷바라지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다. 꼭 효도하고 싶다”는 말이, 열일곱 국가대표의 다짐처럼 또렷했다. ☘



한국 여자유도가 올림픽에서 -78kg급 메달을 딴 지는 꽤 됐다. 정경미가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에서 목에 건 동메달이 마지막으로, 그마저도 김미정이 금메달을 획득한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 16년 만에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체급에 눈길을 끄는 기대주 한 명이 등장했다. 용인대 2학년 이혜빈이다. 그는 올해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 잇달아 금메달을 거머쥐는 등 체급 내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글·사진. 송현일 기자

**고교 시절 '적수 없던 최대어'의 고민**

사실 새 얼굴은 아니다. 경민고 시절 이혜빈은 주로 최종량급에서 뛰며 고교 최대어로 이름을 날렸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전국체전 3관왕을 차지했고, 이듬해에는 고교생 신분으로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준우승을 차지하며 당당히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같은 나잇대에서는 말 그대로 적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학 진학 후 좀처럼 늘지 않는 체중이 문제가 됐다. 일반적으로 여자 선수가 최종량급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몸무게가 최소 100kg 내외는 돼야 하는데, 이혜빈은 90kg을 넘겨본 적도 없다. 이 체급 간판인 김하운(안산시청)과 이현지(남녕고)가 각각 110kg, 130kg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신체 조건이다. 이런 이유로 끝내 현실의 벽에 부딪힌 그는 올해 결국 결단을 내렸다. -78kg급으로 체급을 한 계단 내린 것이다.

**'신의 한 수' 체급 변경**

우려와는 달리 이혜빈이 -78kg급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2026 AG도, 2028 올림픽도...양보는 없어요!”**

여자 -78kg급 기대주 용인대 이혜빈

데는 불과 몇 개월이면 충분했다. 지난 9월엔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도 차지했다.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대표 선발전 때만 해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출전권 획득이 한 번 좌절됐다”고 밝힌 그는 “상비군 감독님이 와 일드카드 한 장을 내게 쓰셨다. 그 믿음에 꼭 보답하고 싶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해 들은 바로는 준결승전에서 만난 대만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78kg급에서는 꽤 알아주는 기대주라고 해서 긴장을 좀 했는데, 막상 붙어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 절반으로 어렵지 않게 이겼고, 결승전도 한판승으로 여유롭게 마무리했다. 그 덕분에 새로운 체급에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그게 또 기량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전 대학부에서는 오랜만에 최종량급으로 나서며 금메달을 거머쥐기도 했다.

이혜빈은 “도 대표로 뛰는 거라 전략 체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한 번만 다시 최종량급으로 옮기게 됐다. 여자 대학부 최종량급에는 활동하는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간만에 최종량급에서 뛰는 거였지만 부담은 없었다. 전에 최종량급에서 뛴 때나 지금이나 평소 체중이 80~85kg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라 따로 몸무게를 불릴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전보다 스피드와 체력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몸이 더 가볍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체급 변경은 이혜빈에게 신의 한 수가 됐다.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몸무게가 잘 늘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했다.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타고난 체급이 있는 건데,

최종량급에서 뛰는 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닥친 상황을 계속 외면했다. 그 바람에 대학에 올라와 마음고생을 좀 한 것 같다”며 “-78kg급으로 과감히 내려오면서 전에는 약점이었던 힘이 이제는 강점이 됐다. 스피드는 최종량급 때부터 장점이어서 그런지 지금도 다른 선수들에게 크게 밀리진 않는다. -78kg급이 최종량급보다 전반적으로 나한테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LA 올림픽 향한 간절함**

대표팀 재출신을 꿈꾼다. 이혜빈은 “지금 -78kg급에는 동해시청의 (김)주연 언니와 광주교통공사에서 뛰는 (김)민주 언니가 국가대표로 있다. 두 언니 모두 전에 맞붙은 경험이 있는데, 다들 정말 잘하더라. 하지만 언젠가는 꼭 넘을 거다. 그렇게 되도록 매일 남들보다 2배 이상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당장 내년 아시안게임 출전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체급 변경 이후 제 2의 유도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내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정말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이혜빈은 끝으로 “3년 뒤 올림픽에 꼭 나가고 싶다. 유도를 하면서 그동안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부모님 생각만 하며 버텼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유도 할 때 가장 행복해하신다. LA에서 정말 한 번 부모님을 활짝 웃게 해드리고 싶다”고 다짐했다.

한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는 이혜빈이 “최종량급에서 뛴 때는 체격이 좀 애매한 느낌이 있었는데, -78kg급에 있으니 확실히 체격 조건이 괜찮다. 일단 체급 내 다른 선수들에 비해 근력이 훨씬 좋고, 스피드나 순발력도 기대 이상이다. 그동안 최종량급에서 많이 고생한 게 지금은 오히려 좋은 약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



# “대회 열기에 압도...가슴 뜨거워져” 생활체육 최강자들, 일본을 찾다

## 2025 도쿄 그랜드슬램 참관기

지난 12월 일본에서 열린 2025 도쿄 그랜드슬램 대회 현장에 국내 아마추어 유도 최정상급 선수들이 함께했다. 대한유도회가 2025 생활체육대회 우승자들을 대상으로 참관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며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고, 긴장하고, 웃고 울었다. “도쿄에서 보낸 시간이 워낙 즐겁고 행복해 돌아오는 길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 참관단 선발 기준 : 2025년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1위 다수 입상자(동점일 경우 참가인원수로 우선)  
정리. 송현일 기자



### “세계 무대에서 느낀 유도의 깊이”

#### 김승현

2025 도쿄 그랜드슬램 참관단으로 선정돼 국제대회를 직접 관람하는 뜻깊은 기회를 얻었다. 2023년 파견 사업이 시작됐을 때부터 참여를 희망해 왔다. 이번 참관을 계기로 유도를 대하는 목표와 방향 역시 한층 분명해졌다. ‘언젠가는 꼭 1등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지난 2년간 거의 모든 대회에 출전해 온 노력의 결실로, 큰 국제무대를 직접 마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현지 관중들의 경기 관람 문화였다. 매트 위 상황에 집중하며 유도 자체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관중들은 조용하고 진중하게 경기를 지켜봤고, 뛰어난 기술이 나올 때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박수가 이어졌다. 이러한 경기 문화가 한국에서도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부상에 대한 걱정으로 유도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지만, 이번 참관단 선발을 계기로 주변의 응원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경험은 큰 힘이 됐고, 앞으로도 유도를 더욱 열정적으로 이어갈 동기가 됐다.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준 대한유도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함께 본 경기, 함께 커진 유도”

#### 이지운

2025 도쿄 그랜드슬램 참관은 스스로에게도 놀랍고 기쁜 경험이었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 그 어떤 여행보다 의미 있게 느껴졌다. 이동과 휴식 시간마다 자연스럽게 유도 이야기가 이어졌고, 각자의 스타일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큰 자극을 받았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속에서 유도를 향한 깊은 애정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의 기술을 분석하고 기쁨과 아쉬움을 나누는 시간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경험이 됐다. 직접 경기에 나서는 것뿐 아니라 관람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의 모습은 도쿄 그랜드슬램의 명성을 실감하게 했다. 특히 메달전에서 이어진 숨죽인 긴장감과 진심 어린 환호, 박수는 지금도 선명하다. 일정상 결승전을 끝까지 보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일정이었다. 이번 참관은 생활체육인으로서 유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다.

### “첫 해외여행에서 새긴 다짐”

#### 유준민

이번 참관단 일정은 첫 해외여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처음 해외를 나간 경험 자체도 인상 깊었지만, 유도 성적을 바탕으로 대한유도회의 지원을 받아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도쿄 그랜드슬램 경기장에서 평소 좋아하던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함께 사진을 남긴 순간은 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됐다. 이번 참관을 계기로 유도를 더욱 성실히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

### “유도의 세계를 넓히다”

#### 송민기

그랜드슬램이라는 큰 무대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직접 관람한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경기 흐름과 기술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특히 인상 깊었다. 참관단의 다른 체급 우수 선수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다양한 시선으로 경기를 분석한 시간 역시 유익했다. 이러한 경험이 더 널리 알려져 대회 참여가 활성화되고, 유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기다림 끝에 마주한 도쿄”

#### 임지연

2023년과 2024년 참관단 파견에 도전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던 만큼, 2025년 참관단에 선정됐다는 소식은 더욱 기쁘게 다가왔다. 국제대회 현장에서 여러 나라 선수들의 경기와 기술을 직접 보고 응원하며 배우는 과정 속에서 유도에 대한 열정도 한층 깊어졌다. 값진 경험이었으며, 참관단 모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도쿄에서 보낸 시간이 워낙 즐겁고 행복해 돌아오는 길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으며, 유도를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다지게 됐다.

### “다시 불타오른 열정”

#### 신은서

매년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도쿄 그랜드슬램 현장을 올해 직접 찾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화면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현장의 열기와 분위기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큰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직접 보고 응원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여러 고민 끝에 참여했지만, 현장을 찾은 선택이 옳았다고 느낄 만큼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이번 경험은 오래 간직할 추억이 될 것이며, 출산과 회복 이후 다시 유도를 성실히 이어갈 힘이 될 것이다. 🌟

### 2025 미래 국가대표 합숙 및 국외전지훈련 실시

#### 2025 꿈나무선수 영재 국외전지훈련

**훈련기간** 2025년 11월 9일~11월 15일(6박 7일)  
**훈련장소** 일본, 도쿄(하나다학원, 케이오대학, 아사히도장)

<b>임원(4명)</b>	임희대(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 권성훈(신흥초 코치), 조아라(신철원초 코치), 조국(세이코토타살루션 대표)
<b>선수/ 남자 (10명)</b>	-36kg 이의리(송남초), 하정후(김재범유도관), 배서준(사북초) -42kg 정수현(사북초), 조윤은(송중초) -48kg 최우현(송중초), 홍상운(동남초) -54kg 정용(용화초) -66kg 김가온(명천초) +66kg 최승우(양주고음유도체육관)
<b>선수/ 여자 (9명)</b>	-36kg 김노을(철원초) -40kg 안소정(홍천유도스포츠클럽), 강예빈(한라유도클럽) -44kg 강서은(동남초) -48kg 윤경화(신철원초), 권도연(광주거점스포츠클럽), 오유림(명덕초) -52kg 김현수(인천서흥초) +52kg 이보은(김해철원초)

#### 2025 청소년대표팀 국외전지훈련

**훈련기간** 2025년 12월 8일~12월 13일(5박 6일)  
**훈련장소** 일본, 도쿄(국사관대 부속 중·고등학교)

<b>임원(4명)</b>	김대봉(청소년대표팀 전담지도자), 조상훈(운양중 코치), 성문기(영양초 코치), 정다운(제주유도회관 코치)
<b>선수(20명)</b>	-45kg이 준(부평서중), 윤준혁(보성중) -48kg 김보민(진량중), 김주원(도개중) -51kg 이현(부평서중), 조부건(사북중), 최연성(청라중) -55kg 노윤(청라중), 김유찬(부평서중) -60kg 박현우(경민중), 이동재(서울체육중) -66kg 정의성(신현중), 문준서(보성중) -73kg 김세윤(송도중) -81kg 양태민(경민중), 최이석(무극중) -90kg 문준서(과천중), 김재후(보성중), 이원준(육천중) +90kg 김형주(태장중)

#### 2025 청소년대표팀 (2차)합숙훈련

**훈련기간** 2025년 11월 20일~11월 30일(10박 11일)  
**훈련장소** 제주유도회관

<b>임원(8명)</b>	김대봉(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 조상훈(운양중 코치), 성문기(영양초 코치), 최혁진(제주도체육회 코치), 정다운(제주유도회관 코치), 소 미(서울체중 코치), 김민영(철원여중 코치), 김사진(트레이너)
<b>선수/ 남자 26명</b>	-45kg 이 준(부평서중), 윤준혁(보성중), 김보민(진량중), 김주원(도개중), 이 산(해동중) -51kg 이 현(부평서중), 조부건(사북중), 최연성(청라중) -55kg 노윤(청라중), 김유찬(부평서중), 문장원(플라이유도센터) -60kg 송세현(경북금호중), 박현우(경민중), 이동재(서울체육중) -66kg 정의성(신현중), 문준서(보성중), 김서준(보성중) -73kg 김세윤(송도중) -81kg 양태민(경민중), 최이석(무극중), 양준훈(아라중) -90kg 문준서(과천중), 김재후(보성중), 이원준(육천중) +90kg 김형주(태장중)
<b>선수/ 여자 20명</b>	-42kg 강민하(중앙중), 손민서(육천여중), 김슬아(사북중) -45kg 박가은(원당중) -48kg 안혜원(중앙중), 이보은(신현여중), 정아연(서울체중) -52kg 권세현(서울체중), 조서희(서울체중), 김예빈(신현여중) -57kg 백서영(중앙중), 손예슬(경민여중), 김소연(울산스포츠과학중) -63kg 곽유주(플라이유도센터), 이혜원(안락중) -70kg 이서현(플라이유도센터), 정아인(도개중), 선에스더(정북정무스포츠클럽) +70kg 임수경(금곡중), 심지민(연무여중)



### 2025 한일우수청소년 스포츠교류 파견사업 실시

2025년도 한·일 우수청소년 스포츠교류 파견사업이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5박 6일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지도자 3명과 선수 20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후보선수 팀 23명이 참가해 일본 청소년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2025 도쿄 그랜드슬램 대회를 참관했다.

<b>전임감독(1명)</b>	김현태(후보선수 전담지도자)
<b>전문지도자(2명)</b>	현후익(남녕고), 김주연(선문대)
<b>선수(20명)</b>	손예원(서울체고), 이유진(경기체고), 유슬기(영서고), 유하늘(영서고), 신유미(광영여고), 백지호(주산산업고), 이소윤(도개고), 배슬비(금곡고), 박채령(인천체고), 김민지(경기체고), 이채경(서울체고), 고은아(용인대), 양지언(광영여고), 송다영(도개고), 홍다인(인천체고), 정예담(용인대), 고미소(남녕고), 김고은(남녕고), 강수민(광영여고), 이승주(도개고)

### 2025년도 제4차 정기승단심사 실시

본회 2025년도 제4차 정기승단심사가 11월 27일에 실시됐다. 이번 승단심사에서는 8단 4명을 비롯해 총5,447명이 합격하였다.

승단인원	인원	승단인원	인원
8단	4명	2단	984명
7단	8명	초단	2,357명
6단	17명	소년3단	59명
5단	33명	소년2단	358명
4단	178명	소년초단	1,182명
3단	267명		

### 유도인동정

#### 남자 국가대표팀 의무트레이너 채용

본회는 남자 국가대표팀 의무트레이너를1명 공개 채용했다. 지난 10월28일 면접평가를 진행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거쳐 남자대표팀 의무트레이너에 주종환 물리치료사를 선임했다. 정식채용기간은 대한체육회 승인일인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이다.

### 2025년 대한유도회 표창대상자 명단

**시상일시** 2025. 12. 22.(월) 17:00  
**시상장소**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구분	대상자		
<b>경기상 (최우수선수)</b>	이현지 (남녕고등학교)		
<b>경기상 (특별상)</b>	김하윤(안산시청)		
<b>경기상 (우수선수)</b>	김중훈(양평군청)	이준환(포항시청)	이승엽(양평군청)
	김민주(광주교통공사)	김용민(용인대학교)	허미미(경북체육회)
	장세윤(사그를 필릭스)	모수민(한국체육대학교)	이혜빈(용인대학교)
	(KATA) [잡기] 박준영 / [반기] 정지훈(에이스유도체육관)		
<b>우수선수상</b>	[초등부] 이의리 (송남초등학교)	[중등부] 양태민 (보성중학교)	[고등부] 심재운 (주산산업고등학교)
<b>우수선수상 (생활체육)</b>	[남자] KIM YEGOR (김재범유도관)	[여자] 유수민 (JNS유도발전팀)	
<b>경기상 (단체상)</b>	[남초부] 사북초등학교	[남고부] 경민고등학교	[남일반부] 국군체육부대
	[여초부] 철원초등학교	[여고부] 광영여자고등학교	[여일반부] 순천시청
	[남중부] 보성중학교	[남대부] 용인대학교	[생활체육] 안산유도체육관
	[여중부] 서울체육중학교	[여대부] 한국체육대학교	
<b>지도상</b>	[남초부] 배수인 (사북초등학교)	[남고부] 오승용 (경민고등학교)	[남일반부] 김재훈 (국군체육부대)
	[여초부] 최수진 (철원초등학교)	[여고부] 김민지 (광영여자고등학교)	[여일반부] 박다솔 (순천시청)
	[남중부] 백승엽 (보성중학교)	[남대부] 한기쁨 (용인대학교)	[생활체육] 박혁 (안산유도체육관)
	[여중부] 소미 (서울체육중학교)	[여대부] 홍승환 (한국체육대학교)	[KATA] 이상진 (에이스유도체육관)
<b>공로패</b>	[서울] 김하식 (부회장)	[세종] 유동훈 (전무이사)	[경남] 이태훈 (통영시유도회장)
	[부산] 김희수 (상임부회장)	[경기] 김민수 (경기력향상위원장)	[경북] 신준호 (부회장)
	[대구] 유선진 (부회장)	[강원] 조금목 (부회장)	[제주] 이창현 (부회장)
	[인천] 김삼덕 (이사)	[충남] 심광석 (이사)	[초종교] 이재용 (부회장)
	[광주] 김대욱 (심판위원장)	[충북] 한미진 (충북도청 지도자)	[대학] 한광욱 (부회장)
	[대전] 김범식 (총무이사)	[전남] 최성용 (이사)	[실업] 정준호 (이사)
	[울산] 한중수 (선수강화위원장)	[전북] 이종호 (우석고 지도자)	
[고교]	남해고등학교	[실업]	1. 휴버트 2. 부안군청
			이대성(한국대학유도연맹 회장)
	옥춘호		이용호(안산시청)

2025 철원컵 전국유도대회 2025. 9. 8.(월)~13.(토) / 강원, 철원실내체육관

Table with 4 columns: 체급, 순위, 선수명, 소속. Includes categories like 12세 이하부(남초), 12세 이하부(여초), 15세 이하부(남중), 15세 이하부(여중).

Table with 4 columns: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Lists winners and runners-up for various weight classes and age groups.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2025. 10. 17.(금)~22.(수) / 부산, 부경대학교 체육관

Table with 4 columns: 체급, 순위, 선수명, 소속. Includes categories like 남자대학부, 여자대학부, 남자일반부, 여자일반부.

Table with 4 columns: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Lists winners and runners-up for various weight classes and age groups.

2025 동트는동해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2025. 10. 25.(토)~26.(일) / 강원, 동해체육관

Table with 4 columns: 체급, 순위, 선수명, 소속. Includes categories like 남자초등부, 여자초등부, 남자중학부, 여자중학부, 남자고등부, 여자고등부.

Table with 4 columns: 체급, 순위, 선수명, 소속. Includes categories like 여자일반부, 18세 이하부(남고), 18세 이하부(여고).

Table with 4 columns: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Lists winners and runners-up for various weight classes and age groups.

Table with 4 columns: 체급, 순위, 선수명, 소속. Includes categories like 남자초등부(5-6학년), 여자초등부(5-6학년), 남자중학부, 여자중학부, 남자고등부, 여자고등부.

2025 동트는동해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2025. 10. 25.(토)~26.(일) / 강원, 동해체육관

Table with 4 columns: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Sub-sections: 여자고등부, 청년부.

Table with 4 columns: 체급, 순위, 1위, 2위, 3위. Sub-sections: 중년부, 여자일반부.

2025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2026년 1차 국가대표 선발전 겸)

2025. 11. 1.(토)~6.(목) / 전남, 순천팔마체육관

Table with 4 columns: 체급, 금, 은, 동. Sub-sections: 12세 이하부(남초), 12세 이하부(여초), 15세 이하부(남중), 15세 이하부(여중).

Table with 4 columns: 체급, 금, 은, 동. Sub-sections: 18세 이하부(남고), 18세 이하부(여고), 남자부, 여자부.

단체전

Table with 5 columns: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Rows for 남자초등부, 여자초등부, 남자중학부, 여자중학부, 남자고등부, 여자고등부, 남자대학부, 남자일반부, 여자일반부.

2025 제주컵 전국유도대회

2025. 12. 1.(월)~4.(금) 제주, 제주한라체육관

Table with 4 columns: 체급, 금, 은, 동. Sub-sections: 12세 이하부(남초), 12세 이하부(여초), 15세 이하부(남중), 15세 이하부(여중).

단체전

Table with 5 columns: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Rows for 남자초등부, 여자초등부, 남자중학부, 여자중학부, 남자고등부, 여자고등부, 남자대학부, 남자일반부.



8단	382	현	31	이	훈	271	김	민	242	박	현	484	유	현	1758	고	규	1754	김	민	1025	김	민	1104	박	현	635	안	성	규	1374	윤	준	818	이	정	민	805	장	기	준	1649	조	승	민	1587	최	희	원	2248	강	정	현	2377	권	성	민	3107	김	대	현
12	김	현	263	이	훈	733	김	민	625	박	현	677	유	현	1502	고	규	1487	김	민	1182	김	민	1104	박	현	1111	안	성	규	1374	윤	준	768	이	정	민	1128	장	기	준	1147	조	승	민	1633	최	희	원	2583	강	정	현	2085	권	성	민	3107	김	대	현
118	김	현	524	이	훈	217	김	민	506	박	현	500	유	현	1678	고	규	898	김	민	1535	김	민	1106	박	현	250	안	성	규	1374	윤	준	716	이	정	민	398	장	기	준	1413	조	승	민	567	최	희	원	2873	강	정	현	2085	권	성	민	3107	김	대	현
83	박	현	38	이	훈	626	김	민	633	박	현	231	유	현	896	공	민	1106	김	민	1596	김	민	1482	박	현	738	안	성	규	1374	윤	준	1083	이	정	민	1612	장	기	준	1673	조	승	민	643	최	희	원	1920	강	정	현	4139	권	성	민	4230	김	대	현
58	신	현	447	이	훈	172	김	민	402	박	현	714	유	현	1482	공	민	1536	김	민	1846	김	민	1391	박	현	798	안	성	규	1374	윤	준	1490	이	정	민	1571	장	기	준	1547	조	승	민	745	최	희	원	3921	강	정	현	2996	권	성	민	3493	김	대	현
128	김	현	308	이	훈	443	김	민	132	박	현	511	유	현	1391	공	민	359	김	민	1665	김	민	1482	박	현	1741	안	성	규	1374	윤	준	1197	이	정	민	648	이	정	민	1431	조	승	민	906	최	희	원	3978	강	정	현	1934	권	성	민	2904	김	대	현
253	김	현	173	이	훈	443	김	민	132	박	현	511	유	현	1391	공	민	359	김	민	1665	김	민	1482	박	현	1741	안	성	규	1374	윤	준	1197	이	정	민	648	이	정	민	1431	조	승	민	906	최	희	원	3978	강	정	현	1934	권	성	민	2904	김	대	현
70	박	현	548	이	훈	187	김	민	551	배	현	511	유	현	1627	공	민	476	김	민	911	김	민	1377	박	현	1738	안	성	규	1374	윤	준	116	이	정	민	1003	장	기	준	1557	조	승	민	1365	최	희	원	2282	강	정	현	4048	권	성	민	2522	김	대	현
3	이	훈	266	이	훈	176	김	민	147	배	현	454	유	현	1548	공	민	476	김	민	945	김	민	1236	박	현	1488	안	성	규	1374	윤	준	151	이	정	민	948	이	정	민	1690	조	승	민	1624	최	희	원	3228	강	정	현	2201	권	성	민	3039	김	대	현
319	정	현	230	이	훈	129	김	민	560	배	현	905	유	현	1214	공	민	476	김	민	1155	김	민	1236	박	현	1488	안	성	규	1374	윤	준	1231	이	정	민	482	장	기	준	1229	조	승	민	1683	최	희	원	2192	강	정	현	1949	권	성	민	2816	김	대	현
79	조	현	48	이	훈	153	김	민	460	배	현	460	유	현	1572	공	민	614	김	민	1425	김	민	1108	박	현	1096	안	성	규	1374	윤	준	1519	이	정	민	1029	이	정	민	1750	조	승	민	703	최	희	원	2019	강	정	현	3445	권	성	민	4168	김	대	현
110	진	현	50	이	훈	656	김	민	727	배	현	23	유	현	1719	공	민	695	김	민	1451	김	민	1604	박	현	1359	안	성	규	1374	윤	준	1746	이	정	민	1664	이	정	민	880	조	승	민	1891	최	희	원	3532	강	정	현	3079	권	성	민	3535	김	대	현
127	최	현	61	이	훈	559	김	민	373	배	현	374	유	현	1591	공	민	1516	김	민	1550	김	민	1550	박	현	1347	안	성	규	1374	윤	준	1435	이	정	민	1194	이	정	민	1689	장	기	준	575	최	희	원	2203	강	정	현	1988	권	성	민	2532	김	대	현
13	한	현	34	이	훈	208	김	민	444	배	현	262	유	현	1326	공	민	1514	김	민	1198	김	민	1222	박	현	1813	안	성	규	1374	윤	준	1761	이	정	민	859	이	정	민	1606	이	정	민	3438	강	정	현	3820	권	성	민	2184	김	대	현				
59	한	현	73	이	훈	636	김	민	287	배	현	754	유	현	1256	공	민	32	김	민	1256	김	민	496	박	현	1213	안	성	규	1374	윤	준	573	이	정	민	1606	이	정	민	2774	조	승	민	429	한	현	3012	권	성	민	3981	김	대	현					
426	김	현	260	이	훈	323	김	민	219	배	현	728	유	현	986	공	민	371	구	규	477	김	민	900	박	현	516	안	성	규	1374	윤	준	1711	이	정	민	1840	이	정	민	1680	장	기	준	976	최	희	원	1973	권	성	민	3092	김	대	현				
148	김	현	212	이	훈	503	김	민	299	배	현	365	유	현	986	공	민	704	구	규	986	김	민	1378	박	현	1233	안	성	규	1374	윤	준	1063	이	정	민	1401	이	정	민	1473	조	승	민	1473	조	승	민	1473	조	승	민	2959	김	대	현				
54	고	현	327	이	훈	389	김	민	542	배	현	546	유	현	168	공	민	764	구	규	168	김	민	1614	박	현	858	안	성	규	1374	윤	준	1447	이	정	민	1484	이	정	민	1436	장	기	준	1393	한	현	4145	권	성	민	2779	김	대	현					
66	김	현	318	김	현	243	이	훈	523	배	현	618	유	현	1537	공	민	1842	김	민	1207	김	민	1363	박	현	1363	안	성	규	1374	윤	준	580	이	정	민	1766	장	기	준	1095	조	승	민	1393	한	현	2625	권	성	민	2414	김	대	현					
70	김	현	417	김	현	16	이	훈	41	배	현	465	유	현	355	공	민	645	김	민	1569	김	민	1667	박	현	968	안	성	규	1374	윤	준	1209	이	정	민	832	이	정	민	609	장	기	준	651	한	현	3670	권	성	민	2160	김	대	현					
136	김	현	190	김	현	52	이	훈	58	배	현	519	유	현	1583	공	민	1320	김	민	1357	김	민	1630	박	현	1899	안	성	규	1374	윤	준	628	이	정	민	572	이	정	민	747	장	기	준	705	한	현	3654	권	성	민	2844	김	대	현					
103	서	현	192	김	현	114	이	훈	587	배	현	300	유	현	877	공	민	1020	김	민	877	김	민	912	박	현	164	안	성	규	1374	윤	준	1511	이	정	민	951	이	정	민	1636	장	기	준	1221	한	현	2854	권	성	민	2754	김	대	현					
89	어	현	383	김	현	280	이	훈	561	배	현	455	유	현	1598	공	민	1125	김	민	1448	김	민	1396	박	현	1619	안	성	규	1374	윤	준	1102	이	정	민	743	이	정	민	1085	조	승	민	2957	조	승	민	3905	권	성	민	2437	김	대	현				
111	오	현	157	김	현	521	이	훈	303	배	현	464	유	현	1125	공	민	878	김	민	1217	김	민	1493	박	현	584	안	성	규	1374	윤	준	1496	이	정	민	698	이	정	민	816	주	현	1454	한	현	4005	김	대	현										
6	이	훈	336	김	현	25	이	훈	562	배	현	139	유	현	878	공	민	585	김	민	963	김	민	1390	박	현	363	오	현	1772	서	현	790	이	정	민	466	이	정	민	1668	장	기	준	988	지	현	2131	권	성	민	1970	김	대	현						
93	이	훈	345	김	현	134	이	훈	270	배	현	139	유	현	1430	공	민	1529	김	민	701	김	민	240	박	현	1640	안	성	규	1374	윤	준	647	이	정	민	978	이	정	민	1731	지	현	724	허	수	현	2627	김	대	현									
106	이	훈	177	김	현	27	임	현	467	배	현	583	유	현	1499	공	민	1561	김	민	1836	김	민	1348	박	현	871	오	현	1120	서	현	1127	이	정	민	875	이	정	민	708	장	기	준	1495	허	인	현	3754	김	대	현									
64	이	훈	486	김	현	182	임	현	358	배	현	358	유	현	1000	공	민	694	김	민	1356	김	민	1126	박	현	451	오	현	1685	오	현	784	이	정	민	867	이	정	민	1827	한	현	2376	고	현	2706	김	대	현											
10	이	훈	501	김	현	315	장	현	715	배	현	409	유	현	1888	공	민	1888	권	현	791	김	민	1725	박	현	623	서	현	1226	오	현	902	이	정	민	364	이	정	민	1230	전	현	4110	고	현	2142	기	현	3449	김	대	현								
102	이	훈	183	김	현	220	장	현	60	배	현	268	유	현	1625	공	민	1539	김	민	1225	김	민	1712	박	현	1226	오	현	1216	오	현	674	이	정	민	1568	이	정	민	526	전	현	3846	기	현	3210	김	대	현											
81	이	훈	141	김	현	449	김	현	290	배	현	290	유	현	1001	공	민	1409	김	민	1409	김	민	972																																					



4056	김민준	3282	김승우	3518	김의겸	3237	김창현	2718	나두영	3026	박민준	3334	박정환	3309	배현	4261	소성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794	김민준	4263	김승우	2804	김의현	4080	김창환	4124	나상영	2909	박민준	2911	박정환	3956	배준우	3181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435	김민준	3863	김승우	3404	김의현	3891	김재원	3766	나윤혁	2454	박민준	2677	박정환	3166	배준우	2050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310	김민준	1999	김승우	2290	김익중	3363	김재원	2665	나윤혁	3865	박민준	2386	박정환	3247	배지원	2882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104	김민준	2325	김승우	2472	김인성	2982	김재원	3619	나윤혁	2086	박민준	2089	박정환	3925	배지원	3801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831	김민준	3289	김승우	3877	김인성	2382	김재원	2591	나윤혁	2087	박민준	2253	박정환	2743	배지원	3611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709	김민준	4053	김승우	2241	김재광	4224	김재원	3546	나윤혁	2088	박민준	3741	박정환	3522	배지원	3854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428	김민준	2380	김승우	2554	김재광	3455	김재원	3367	나윤혁	2492	박민준	2099	박정환	3372	배지원	2507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423	김민준	2513	김승우	4123	김재원	4055	김재원	3081	나윤혁	3818	박민준	3755	박정환	3818	배지원	3871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1936	김민준	3402	김승우	3845	김재원	2006	김재원	3235	나윤혁	2370	박민준	2499	박정환	3235	배지원	3609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711	김민준	2995	김시우	3153	김재원	2189	김태균	4036	남경민	2899	박민준	3062	박정환	2360	백강민	2624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476	김민준	2299	김시우	2693	김재원	3432	김태원	4043	남경민	3671	박민준	3017	박정환	2081	백건우	2211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632	김민준	3746	김시우	4246	김재원	3294	김태원	1970	남경민	3616	박민준	3388	박정환	2353	백경민	3116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261	김민준	2675	김시우	2639	김재원	3125	김태원	4084	남경민	2109	박민준	3160	박정환	2312	백무준	4245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146	김민준	3710	김시우	3133	김재원	3097	김태원	3656	남경민	2448	박민준	2560	박정환	4070	백준서	3044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901	김민준	2029	김시우	3257	김재원	2383	김태원	2181	남경민	2329	박민준	3777	박정환	4171	백준서	2949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970	김민준	4132	김시우	3633	김재원	3767	김태원	2039	남경민	2042	박민준	2215	박정환	4119	백준서	2350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780	김민준	4008	김시우	3431	김재원	3560	김태원	3906	남경민	2730	박민준	3029	박정환	3524	백준서	4079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350	김민준	2924	김시우	2488	김재원	3539	김태원	3252	남경민	4098	박민준	3547	박정환	2863	백준서	1955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259	김민준	3913	김시우	2603	김재원	3283	김태원	3383	남경민	3615	박민준	2365	박정환	4213	백지원	2835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068	김민준	3183	김시우	3875	김재원	4176	김태원	4014	남경민	3649	박민준	2287	박정환	3299	백지원	2101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4205	김민준	3032	김시우	2222	김재원	3883	김태원	2225	남경민	4066	박민준	4152	박정환	4066	백찬민	2914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234	김민준	2417	김시우	4240	김재원	3850	김태원	4015	남경민	3246	박민준	2289	박정환	3776	백찬민	1956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370	김민준	2030	김시우	3433	김재원	3433	김태원	3618	남경민	3700	박민준	2731	박정환	2731	백찬민	3323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555	김민준	3458	김시우	2235	김재원	2001	김태원	4227	남경민	3580	박민준	3584	박정환	3904	변우현	3929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847	김민준	3769	김시우	2240	김재원	3205	김태원	2040	남경민	2493	박민준	3016	박정환	4151	변우현	3963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300	김민준	3279	김시우	2694	김재원	3625	김태원	3027	남경민	4087	박민준	4100	박정환	2265	변우현	3351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486	김민준	2217	김시우	3857	김재원	2147	김태원	3316	남경민	2351	박민준	3341	박정환	2544	변우현	3771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923	김민준	2971	김시우	3138	김재원	3800	김태원	2161	남경민	2487	박민준	2881	박정환	3613	변우현	3613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588	김민준	3457	김시우	2489	김재원	3384	김태원	2485	남경민	2606	박민준	2320	박정환	3983	변우현	2697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447	김민준	2878	김시우	3249	김재원	2663	김태원	2755	남경민	3520	박민준	4106	박정환	3567	변우현	2051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778	김민준	2579	김시우	2973	김재원	2002	김태원	2385	남경민	4247	박민준	3510	박정환	3786	변우현	3411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949	김민준	2559	김시우	3376	김재원	4039	김태원	2570	남경민	3935	박민준	3328	박정환	3328	복건준	2132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2246	김민준	2197	김시우	4013	김재원	4012	김태원	2413	남경민	3614	박민준	3207	박정환	2618	불수준	2082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4069	김민준	2031	김시우	2999	김재원	2999	김태원	3473	남경민	2043	박민준	3856	박정환	2834	변우현	2389	소지현	2176	신정호	2994	엄도현	3696	유서현	3273	윤호현	2650	이서진	2439	이유진	3651	이진우	3924	임예현	3867	전민결	2771	정윤석	3597	조은영
3127	김민준	418																																					



3736	최정민	3196	최희진	1930	황도원	598	정준	1785	김원	1285	소운	1329	임단우	1007	함현	4941	김결	5308	김유	5068	김우	5256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279	민건규	4078	희진찬	2941	동규재	679	혜아림	1284	김리곤	1812	신지훈	1330	임예진	1018	홍재원	4613	김경인	5139	송연	5673	김태우	5257	서진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003	주태우	2993	수진민	4167	동민환	610	최수지	936	김태찬	1876	신지훈	1013	임예진	1018	홍재원	4613	김경인	5139	송연	4623	김태우	4990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780	최민영	3463	윤진민	2870	황민환	685	최수지	1263	김태찬	1286	신지훈	1898	임예진	930	황서우	4468	김고영	5070	김우	4685	김태우	4430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415	최민영	2075	하수진	4135	황민환	480	최수지	1789	김태찬	1070	신지훈	1889	임예진	1031	황서우	5363	김고영	5033	김우	4912	김태우	4912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527	최민영	2772	하수진	2079	황민환	815	최수지	1834	김태찬	1834	신지훈	1860	임예진	1252	황서우	5371	김고영	4679	김우	4630	김태우	4630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604	최민영	2664	하수진	3587	황민환	827	최수지	1314	김태찬	1777	신지훈	1837	임예진	1161	황서우	4467	김고영	4465	김우	4410	김태우	4410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553	최민영	3881	하수진	3314	황민환	844	최수지	1280	김태찬	1777	신지훈	1837	임예진	1161	황서우	4467	김고영	4465	김우	4410	김태우	4410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4034	최민영	3496	하수진	3084	황민환	600	최수지	1009	김태찬	1024	신지훈	1835	임예진	1185	황서우	4397	김고영	5036	김우	4536	김태우	4536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460	최민영	2991	하수진	3994	황민환	843	최수지	678	김태찬	1167	신지훈	1835	임예진	1185	황서우	4397	김고영	5036	김우	4536	김태우	4536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595	최민영	3284	하수진	3653	황민환	597	최수지	1130	김태찬	1849	신지훈	1857	임예진	1012	황서우	5046	김고영	4891	김우	4490	김태우	4490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986	최민영	2076	하수진	3078	황민환	1098	최수지	1098	김태찬	1055	신지훈	1832	임예진	1012	황서우	5046	김고영	4891	김우	4490	김태우	4490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4121	최민영	2200	하수진	2920	황민환	1082	최수지	1082	김태찬	1055	신지훈	1832	임예진	1012	황서우	5046	김고영	4891	김우	4490	김태우	4490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817	최민영	3946	하수진	4228	황민환	1848	최수지	1815	김태찬	1026	신지훈	1186	임예진	4436	김고영	4645	김우	4762	김태우	4762	김태우	4762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689	최민영	2159	하수진	1259	황민환	1145	최수지	1145	김태찬	1838	신지훈	1339	임예진	4363	김고영	4480	김우	4548	김태우	4548	김태우	4548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860	최민영	3245	하수진	3928	황민환	1140	최수지	917	김태찬	665	신지훈	1056	임예진	4493	김고영	4694	김우	4694	김태우	4694	김태우	4694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968	최민영	3111	하수진	3344	황민환	854	최수지	1802	김태찬	1073	신지훈	1159	임예진	5422	김고영	5161	김우	4693	김태우	4693	김태우	4693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195	최민영	2178	하수진	3562	황민환	1892	최수지	1028	김태찬	1028	신지훈	1160	임예진	4299	김고영	5380	김우	5158	김태우	5158	김태우	5158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140	최민영	3168	하수진	3318	황민환	1893	최수지	1068	김태찬	887	신지훈	1324	임예진	5381	김고영	4784	김우	4291	김태우	4291	김태우	4291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982	최민영	2221	하수진	3967	황민환	1086	최수지	1193	김태찬	1831	신지훈	1136	임예진	5301	김고영	4527	김우	4888	김태우	4888	김태우	4888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930	최민영	3708	하수진	3785	황민환	1264	최수지	1301	김태찬	1856	신지훈	1798	임예진	4925	김고영	4810	김우	5188	김태우	5188	김태우	5188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4083	최민영	3912	하수진	2442	황민환	1768	최수지	1157	김태찬	1084	신지훈	1138	임예진	4473	김고영	4383	김우	4560	김태우	4560	김태우	4560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1967	최민영	3277	하수진	1925	황민환	1895	최수지	940	김태찬	1257	신지훈	1817	임예진	5438	김고영	4327	김우	4452	김태우	4452	김태우	4452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4094	최민영	4253	하수진	3573	황민환	1806	최수지	1176	김태찬	1048	신지훈	1048	임예진	5035	김고영	4571	김우	5353	김태우	5353	김태우	5353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977	최민영	3406	하수진	2799	황민환	1865	최수지	1123	김태찬	1123	신지훈	1845	임예진	4344	김고영	4461	김우	5245	김태우	5245	김태우	5245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506	최민영	2843	하수진	3578	황민환	1897	최수지	1270	김태찬	1897	신지훈	1316	임예진	4916	김고영	4782	김우	4901	김태우	4901	김태우	4901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998	최민영	1968	하수진	2212	황민환	1797	최수지	1191	김태찬	1321	신지훈	1099	임예진	5382	김고영	4896	김우	4896	김태우	4896	김태우	4896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704	최민영	3970	하수진	4180	황민환	889	최수지	1295	김태찬	1875	신지훈	1779	임예진	4378	김고영	4439	김우	5399	김태우	5399	김태우	5399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827	최민영	3055	하수진	2738	황민환	1807	최수지	1283	김태찬	849	신지훈	1137	임예진	5172	김고영	4939	김우	5399	김태우	5399	김태우	5399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912	최민영	2258	하수진	4092	황민환	1315	최수지	849	김태찬	1332	신지훈	1046	임예진	5001	김고영	5192	김우	4528	김태우	4528	김태우	4528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187	최민영	3889	하수진	2703	황민환	1703	최수지	925	김태찬	1389	신지훈	1156	임예진	4265	김고영	4863	김우	4588	김태우	4588	김태우	4588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482	최민영	3758	하수진	3594	황민환	1076	최수지	1787	김태찬	1255	신지훈	1143	임예진	4926	김고영	4647	김우	5000	김태우	5000	김태우	5000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106	최민영	2691	하수진	2165	황민환	1843	최수지	1276	김태찬	1801	신지훈	1078	임예진	4266	김고영	4890	김우	4848	김태우	4848	김태우	4848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4144	최민영	3705	하수진	3099	황민환	1087	최수지	1795	김태찬	1089	신지훈	1871	임예진	5408	김고영	4647	김우	4412	김태우	4412	김태우	4412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3073	최민영	4214	하수진	2317	황민환	1844	최수지	932	김태찬	1828	신지훈	820	임예진	4443	김고영	4834	김우	5389	김태우	5389	김태우	5389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재	4423	조용	5116	주연
2073	최민영	2534	하수진	2875	황민환	1830	최수지	885	김태찬	1783	신지훈	1820	임예진	4836	김고영	4647	김우	4790	김태우	4790	김태우	4790	박준	5219	방민준	5101	신재우	5310	위준	5213	이수현	4759	이태	4570	전				



암웨이의 진심 더블엑스

# 딱 하나의 영양제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당신의 그 생각을 알기에 [더블엑스]는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정도를 넘어, 지키는 것까지 생각하고  
한국인에게 맞는 영양 조합은 무엇인지 더 꼼꼼하게 생각하고  
많은 영양소를 넘어, 좋은 영양소를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영양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포뮬러]  
[원재료의 영양을 담아내기 위한 뉴트리라이트 컨센트레이션 테크놀로지]  
[뉴트리라이트 자체 건강 연구소 + 약 2,400만㎡ 이상의 광대한 자체 생태계농장]

당신을 위한 ‘딱 하나의 영양제’가 되기 위한 생각,  
[더블엑스]의 진심입니다.

#딱\_하나의\_영양제 #영양제를\_딱\_하나만\_고른다면  
#뉴트리라이트\_과학의\_결정체  
#한국인의\_건강공식 #한국인\_맞춤\_영양\_설계

더블엑스™



가로가 회보 사이즈와 맞지않음  
회보 가로=210mm

연말정산 준비부터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신한은행 IRP로 퇴직금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 면제

(적립금자산 평가액 5천만원 이상이며, 전자금융으로 가입/전환한 경우)  
단, 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 전문가의 관리가 수익률의 차이니까

퇴직연금전문 신한은행

- 분기별 연금 정기관리
- 자산규모별 맞춤 관리
- 종장기 수익률 관리
- 생애주기에 따른 투트랙 관리

\*이 퇴직연금은 예금저축법에 따라 예금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한도) 보호됩니다. \*개인형 IRP의 수수료는 후취 연 0%~0.45%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운용/자산관리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연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에 특별중도 인출시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준법감시인 사립심사원 제2025-15522-1호(2025.12.08~2026.12.07)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원 제25-05260호(2025.12.09~2026.12.08)



J U D O



**아디다스 컴뱃스포츠  
ADIDAS COMBAT SPORTS KOREA**

WEBSITE : [www.acskorea.co.kr](http://www.acskorea.co.kr)  
INSTAGRAM : @acskorea\_judo  
TEL : 02-3019-3808

**아디다스 유도 공식 대리점  
(주)큰산컴퍼니**

TEL : 010-7557-1371  
ADD : 부산 남구 대연동 243-7

**주도코리아 유도복**

아디다스 컴뱃스포츠는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합니다.

JEWOO INTERNATIONAL CO.,LTD.  
서울 서초구 명달로 65 일흥스포타운 4층